



2020 양평군립미술관  
개관 9주년 기념



2020



양평군립미술관  
지역작가 실태연구 자료집



Y M U S E U M

2020 양평군립미술관 개관 9주년 기념

**2020**

양평군립미술관 지역작가

실태연구 자료집

2020. 4. 1. - 10.30



2020

양평군립미술관 지역작가  
실태연구 자료집

# CONTENTS

01

## 양평군립미술관

취지  
운영현황

02

## 2020 지역작가 실태연구

개요  
양평지역 소개

03

## 실태연구 결과

1. 양평 작가단체현황
2. 지역별 거주현황
3. 양평 전입현황
4. 작업환경 현황
5. 장르 및 주요기법별 현황
6. 기타 현황



# Y M U S E U M

04

## 나오며

총평  
설문지 양식

05

## 부록

한국 근현대 미술과 서양미술 흐름  
실태연구로 알아보는 미술장르와 표현기법

2020

양평군립미술관 지역작가  
실태연구 자료집

# Y M U S E U M

## 01

양평군립미술관

취지

운영현황



# 2020

양평군립미술관 지역작가  
실태연구 자료집

양평군립미술관

楊平郡立美術館

YANGPYEONG  
ART MUSEUM



20



# YANGPYEONG MUSEUM

##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양평, 문화로 행복을 가꾸는 양평군립미술관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양평은 경기도 동북부에 있으며 태백산에서부터 흐르는 남한강과 금강산에서 시작되는 북한강이 만나 땅, 산물, 사람이 하나 되어 청정자연을 이루는 고장이다. 이러한 자연은 수도권주민들의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선정되어 각종 공장 또는 산업개발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평군은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현재는 자연 친화적 농경문화와 예술의 고장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지역이라고 하면 도심과 머리 떨어지는 곳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양평군은 자연 친화적인 도시임에도 서울 등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으로 느껴지는 것이 장점이다. 그 이유는 사방 팔달의 교통수단인 버스나 전철 경의, 중앙선이 통과하고, 경강선 ktx, 무궁화호 등을 탈 수 있는 기차역이 있어 양평에 살면서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으로 손쉽게 왕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부담이 적은 데다 문화중심지인 수도권을 쉽게 오갈 수 있는 지리적 여건과 무엇보다도 빈터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 작가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었다. 여기에는 빈 축사나 수곡창고, 빈집 등이 작가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작업실을 꾸릴 수 있는 곳으로 적합한 것도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80년대를 기점으로 양평에 작가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게 되었다. 여기에는 수도권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작가들이 양평으로 이주하며 정착하면서 양평군의 예술적 자양분이 되었다.

양평으로 이주한 이들 작가는 토착 주민과 벽을 쌓는 대신 이웃 농민들과도 친숙하게 지내며 마을의 대소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였다. 모내기나 추수 때 품앗이를 하는 것은 물론, 마을 대동제에도 거리낌 없이 어울림에 따라 처음에는 경계했던 양평토착민과도 허물없이 교분을 나누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화가마을과 작가와 주민들이 화합하는 문화공동체 형태가 형성된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누구나 양평 작가를 알게 되었으며 작가

들은 작업실에서 본인들의 작품활동에 대해 냉정한 품평회를 하는 등 서로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터전을 얻게 되었다. 자연과 전원생활을 사랑하는 작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작은 시골 마을이 예술촌이 되었다는 점에서 양평은 한국의 바르비종이라 할 수 있다. 이 현상은 다른 지역의 작가들이 양평으로 이주하는 것을 가속하는 계기가 되었다.

양평군립미술관은 지역 미술 연구 및 작가들의 아카이브 구축이라는 공공미술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2019~2020, 2년에 걸친 <지역작가실태연구>를 통해 양평 주변의 다양한 곳에서 묵묵히 창작활동을 해온 작가들을 찾아 단계적 동질을 이루는 자료수집과 연구를 통해 양평인으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도 양평군립미술관 학예연구실은 지역의 다양한 곳에서 활동한 작가들로 설문과 함께 직접 방문하는 등, 작가의 작품 성격을 이해하고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 속에 묻혀있던 80여 명의 주옥같은 작가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10월, 양평군립미술관의 가을 프로젝트인 2020미술여행3, 양평 신화 찾기-4 「포스트 양평 POST-YANGPYEONG 展」을 개최할 수 있었다. 포스트 양평展은 양평에 거주 및 활동하면서도 파악되지 않았던 50여 명의 작가들을 조명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 특성과 작품 속 공통된 언어를 연대적으로 분류하여 선보이는 전시로, 중앙화단 중심 한국미술의 흐름에 양평미술을 안착시킴으로써 양평미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 중요성을 부각하고, 양평미술의 대통합과 새로운 물결을 양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양평군립미술관의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양평군립미술관



## 시설현황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대지면적 8,069.00㎡ / 연면적 4,184.65㎡

### 건물규모

지하 1층(1,133.24㎡) : 수장고, O2 SACE, 교육실, 기계실 등

지상 1층(1,337.70㎡) : 1전시실, 상설전시관, 커뮤니티 공간 등

지상 2층(1,048.24㎡) : 2전시실, 3전시실

지상 3층(666.47㎡) : 관장실, 학예연구실, 컨퍼런스룸, 방재실 등

## 운영목표

### 01 비전 | VISION

전문미술관을 통한  
양평문화브랜드 확립

### 03 운영목표 | BEST PLATFORM

- 최고의 현대미술관 정착과 우수작가 발굴
- 최고의 전시기획 / 교육기획 / 문화기획으로 감동선사
- 특화된 미술관 지역미술문화 구현
- 투명경영 - 성장경영 - 독립경영

### 02 미션 |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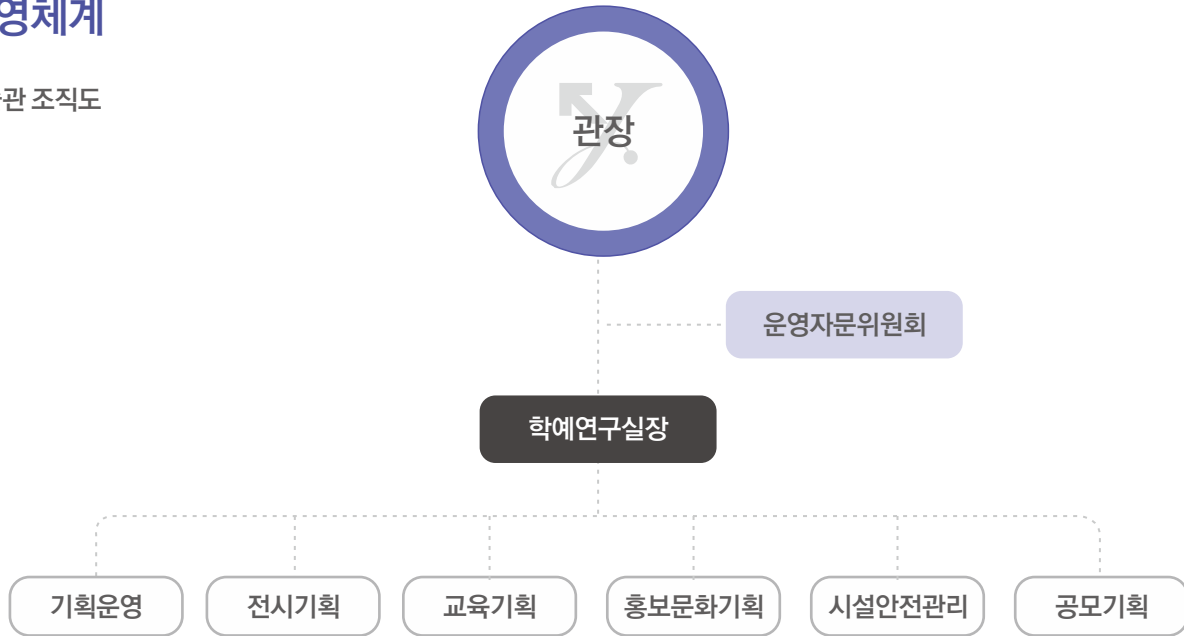
글로벌문화 리드, 문턱이 낮은  
행복한 미술관

### 04 핵심가치 | CORE VALUES

지역미술문화발전, 고객만족과 행복  
지역문화 사회기여, 삶의 질 향상

## 운영체계

미술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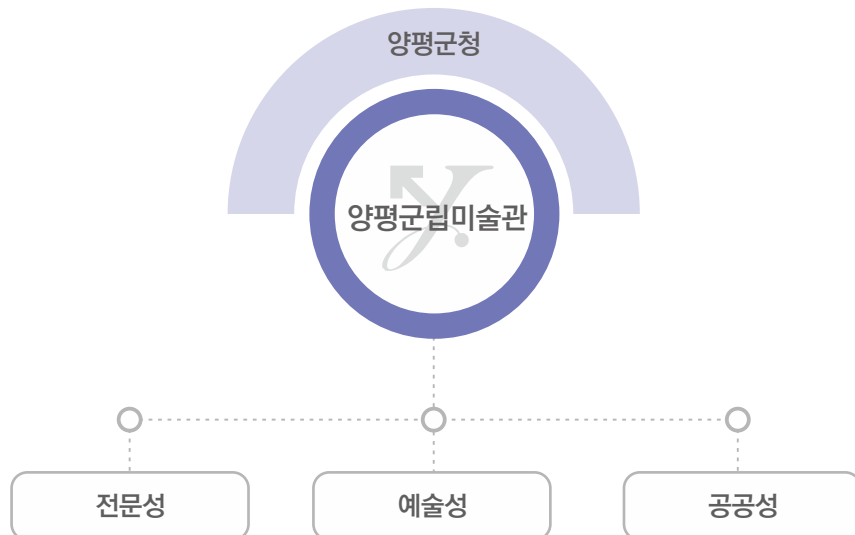


## 운영전략

브랜드 정착을 위한 운영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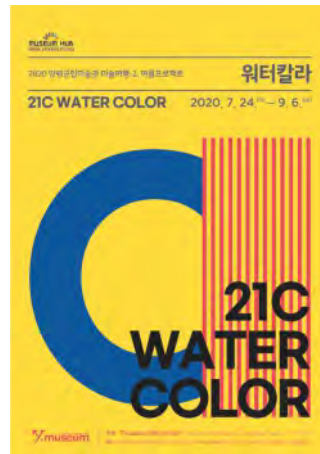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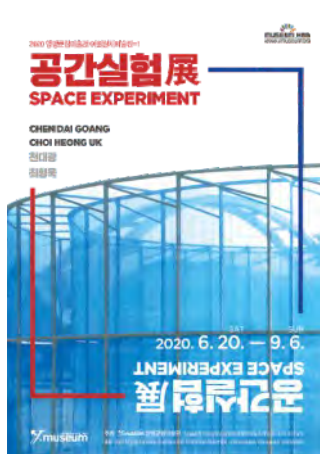
서비스개선 증진을 통한 고객만족

교육아카데미×지역문화인력 양성



# 2020 양평군립미술관 기획전시 포스터

# 주요사업안내





	구분	내용
전시	기획전시	시즌별(봄,여름,가을,겨울) 기획, 특별기획, 야외설치미술전 등 국내 최고의 현대미술관으로 정착하기 위한 최고의 전시기획사업
	전시지원	전시공모를 통해 선정한 작가의 전시를 지원하는 사업
	대관전시	역량있는 예술인 혹은 예술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돕고,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구축하여 문화다양성 유도하는 정기대관 공고를 통해 모집
아카이브	스토리아트맵	양평의 주민들이 알고 있는 구비전승(민담,설화 등)을 수집하여 지역의 숨은 이야기를 향후 작품으로 구현하는 아트맵 프로젝트
	지역작가 실태조사	지역문화예술인(단체)의 실태현황을 설문조사하여 분석하고, 지역과 지역예술인의 문화예술적 성장에 기여하고자하는 연구사업
교육	전시연계 주말교육	전시주제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주말 어린이 창의체험교육
	미술관 탐험대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탐구형 전시관람 프로그램
	맞춤형교육	기관 및 단체가 요구하는 니즈(Needs)에 맞게 교육내용을 설정하여 진행되는 1:1 맞춤형 교육
	특별교육	어린이날, 문화가 있는 날 등 미술관을 찾는 불특정 관람객을 대상으로 기획하는 미술관 특별교육
부대행사	별별아트마켓	작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밀착형 생활문화 예술축제 월1회 개최로 지역작가 창업기반조성에 기여
	전시감상 실기대회	미술관을 찾은 유·아동, 청소년들이 전시를 관람하고 자유롭게 자신만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상시 진행되는 현장실기대회
	미술관 문화행사	미술관 음악회, 어린이 뮤지컬, 학술세미나,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문화향유의 갈증을 해소시키고자 기획한 토털문화예술행사
공모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진행되는 문화가 있는 날을 홍보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도모하는 선정사업
	경기도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경기도내 박물관/미술관이 지역 문화의 거점이 되어 지역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선정사업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경기도 문화의 날을 홍보하고 다채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지역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확대와 격차를 해소하는 문화예술지원 선정사업
	2020 박물관·미술관 주간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 프로그램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맞아 다양성과 포용성을 주제로 미술관 활성화와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을 도모하는 선정 프로그램
	경기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미술, 음악, 놀이 등의 통합교육으로 다양한 소재와 재료를 활용한 상상놀이 활동을 통해 영유아의 오감체험과 호기심을 유발시켜 즐거움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통합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소장품	양평군립미술관 소장품 구입	지역작가와 주민이 함께하는 미술문화활동을 위해 연1 회 소장 미술품을 주기적으로 구입하여 특별전시 유도

## 2020 기획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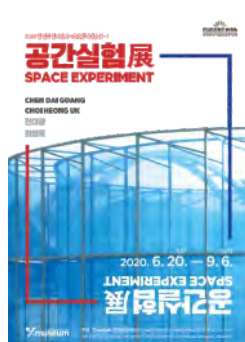
누적관람객 : 143만명 (2020년 9월 9일 기준)

구분	전시명	전시기간	관람객	비고	
	겨울 프로젝트	미디어시티展	12. 13- 2. 16.	31,962	
	야외설치미술-3	겨울사슴展	12. 13- 2. 16.	31,962	
	봄 프로젝트	신소장품 아트클라우드展	5. 12 - 5. 31	798	
기획전시	온라인특별기획	청년작가전 THE ART POWER展			
	야외설치미술-1	공간실험展	6. 20 - 9. 6.	11,315	
	여름프로젝트	21c WATER COLOR展	7. 24 - 9. 6.	4,187	8. 19 ~ 휴관
	가을프로젝트	포스트 양평	10. 16 - 11. 22.		
	야외설치미술-2	해피가든	10. 16 - 11. 28.		
공모전시	컨테이너아트랩	4월 작가전시	4. 3 - 4. 28	2,095	청년작가 지원프로그램
		5월 작가전시	5. 3 - 5. 29	2,633	
		6월 작가전시	6. 3 - 6. 28	2,205	
		7월 작가전시	7. 3 - 7. 29	4,724	
		8월 작가전시	8. 3 - 8. 29	3,157	
		9월 작가전시	9. 3 - 9. 29	1,867	
		10월 작가전시	10. 3 - 10. 29		
		11월 작가전시	11. 3 - 11. 28		
		12월 작가전시	12. 3 - 12. 29		

2019 야외설치미술전-3, <겨울사슴展>



2020 야외설치미술전-1, <공간실험展>



2020 야외설치미술전-2 <해피가든展>



2020 공모전시 <컨테이너아트랩展>



## 컨테이너 아트랩

양평군립미술관의 2020 신규사업인 컨테이너 아트랩은 양평 거주 청년 작가들을 위한 창작지원을 위한 전시 공모 프로그램으로 지역 예술가의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 특화사업으로, 동시에 전시를 통해 평면, 입체, 공예 등 각 시각예술 분야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전시라 할 수 있다.

이 컨테이너 아트랩(Container Art Lab)과 커뮤니티 공간 조성은 지난해 연말 개관 8주년을 기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먼저 컨테이너 아트랩 전시 공간 운영은 전반기(2020.4.1.-7.31)와 후반기(2020.8.1~12.31)로 나누어 전시 공모를 통해 양평 거주 작가 또는 양평 소재의 작업실에서 활동해오고 있는 작가 중 청년작가들을 선발하여 전시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시 작가들은 군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전시 공모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공모 기간 내에 접수하고 심의를 통해 선정되어 컨테이너 아트랩의 전시작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선정된 작가는 1개월 동안 3개의 컨테이너 중 각각 1동에 1명씩 독자적인 전시공간에서 전시하게 된다. 저마다 다른 시각적 어휘를 구사하는 다양한 장르와 매체의 27명(전반기 12명, 후반기 15명)의 양평의 청년작가들이 선정되어 전시작가로 참여하였다. 전시 작가들은 컨테이너 공간(3X6m)에 맞추어 전시작품을 설치하게 되는데 평면작품은 10점 이내의 크고 작은 작품을 전시할 수

있으며 입체작품 역시 10점 이내로 사방 1m 이내의 소품 전시가 가능하다. 작품 운송 및 작품설치는 작가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미술관에서는 홍보물 제작과 홈페이지와 SNS 홍보를 지원하며 전시 기간 작품 보험 가입과 개폐 시간을 관리한다.

회화와 조각은 물론 다양한 매체의 미술품을 볼 수 있는 청년예술을 위한 컨테이너 전시공간인 컨테이너 아트랩을 통해 한층 변모된 양평군립미술관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양평군립미술관은 역량 있는 청년예술인들의 도전적인 창작 활동을 더욱더 폭넓게 지원하며 지역주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올해 코로나-19의 창궐로 미술관을 비롯하여 문화기관들의 휴관이 계속되었던 시기에도 양평군립미술관은 다양한 야외전시와 함께 <컨테이너 아트랩>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미술가들에게 작품전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개관/휴관 상황과 관계없이 관람객들을 지속해서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소통창구를 마련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양평군립미술관의 <컨테이너 아트랩>은 양평이 문화예술의 고장으로서 새로운 희망과 역사문화가 친환경적 자산으로 하나 된 지역공동체의 힘을 담아내는 또 하나의 전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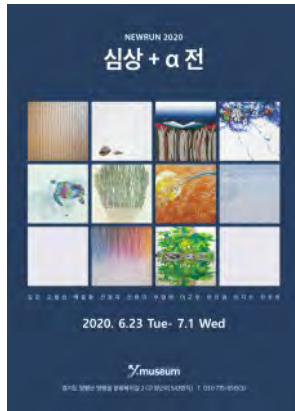




## 2020 대관전시

연간 1회 정기대관공고를 통해 접수 및 심의하여 전반기 1개월, 후반기 1개월 동안 진행되는 대관 전시는 지역작가 발표의 장이자 등용문으로 자리 잡았다.

구분	전시명	전시기간	비고
2020 (사)한국환경사진협회	환경 초대작가전 및 참여작가전	6. 10 - 6. 18.	
2020년 NEWRUN회展	심상 + α 전	6. 23 - 7. 1.	
제12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양평지부展	제12회 회원전 및 중견작가 초대전	6. 23 - 7. 1.	
창립 10주년기념 양평사생회展	양평의 산	9. 12 - 9. 20.	
제18회 양평여성작가회展	양평여성작가회 2020	9. 12 - 9. 20.	
시가람문학회	시시콜콜·詩時CALL콜展	9. 12 - 9. 20.	
(사)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	제56회 경기미술대전	9. 27 - 10. 4.	
(사)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	제13회 경기의 산하전	9. 27 - 10. 4.	
양평미술협회	제21회 양평미술협회 정기전	11. 27 - 1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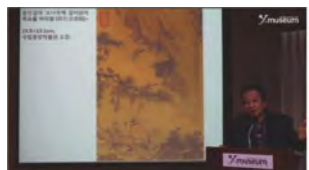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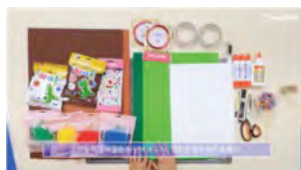
## 2020 유튜브 온라인영상현황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국내최초로 온라인 전시 및 교육을 실시

누적조회수 : 24,190회 (2020년 10월 20일 기준)

구분	전시명	영상명	조회수	비고
기획전시	신소장품 아트 클라우드展	신소장품 아트 클라우드전 전시영상	386	
	The Art Power展	[온라인전시]The Art Power 2020 1부	5,341	
		[온라인전시]The Art Power 2020 2부	1,985	
		[온라인전시]The Art Power 2020 3부	985	
		[온라인전시]The Art Power 2020 4부	831	
	21c WATER COLOR展	21c WATER COLOR전 1부	5,050	
		21c WATER COLOR전 2부	1,064	
	공간실험展	공간실험전_설치미술가 천대광	147	야외전시
		공간실험전_설치미술가 최형욱	96	
	해피가든展	2020 야외설치미술전 2, 해피가든전	38	야외전시
포스트양평展	포스트 양평 POST YANGPYEONG 1부	3,373		
	포스트 양평 POST YANGPYEONG 2부	1,205		
	포스트 양평 POST YANGPYEONG 3부	1,176		
공모전시	컨테이너 아트랩(상반기)	4월 선정작가전(정석우, 송엘리, 조영철)	340	
		5월 선정작가전(정인아, 박재연, 이훤)	155	
		6월 선정작가전(이병희, 몬트킴, 곽철)	125	
	컨테이너 아트랩(하반기)	7월 선정작가전 (황한나, 양경렬, 최영빈)	79	
		8월 선정작가전 (박야일, 조연주, 박기성)	204	
		9월 선정작가전 (양희자, 이상구, 김보라)	78	
		10월 선정작가전 (노준진, 염기현, 김창환)	57	
		11월 선정작가전 (수레아, 송민경, 김진성)	예정	
12월 선정작가전 (곽광분, 김용철, 김태규)	예정			
대관전시	환경초대작가展	2020 환경초대작가전 및 참여작가전	701	
	한국사진작가협회展	한국사진작가협회 양평지부전 홍보영상	372	
	심상+a展	NEWRUN 2020_심상+a전 홍보영상	80	
	詩時CALL콜展	시가람문학회_詩時CALL콜展	10	
	양평여성작가회 2020展	제18회 양평여성작가회 2020展	158	
	제10회 양평사생회 회원전	제10회 양평사생회 회원전	30	
	제13회 경기의 산하전展	제13회 경기의 산하전	124	
	양평미술협회	제21회 양평미술협회 정기전	예정	

## 2020 온라인 교육(행사)

구분	프로그램명	교육명	조회수	비고	
전시연계 교육	〈THE ART POWER〉 전시연계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우리가족 아틀리에	내가 꿈꾸는 집	551		
		행복한 우리가족	505		
		마법에 걸린 봄	208		
		빛나는 조명	235		
		신나는 애니메이션	109		
	〈21c WATERCOLOR〉 전시연계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첨벙첨벙 창의아트리움	신비한 바다 탐험	1329		
		우리들의 보물섬	1181		
		시원한 과일 칵테일	1204		
		태극기게임판	1092		
		신나는곤충채집	1113		
		야쿠아리움 친구들	1170		
		숲 속 마을 아이들	1,181		
	공모사업	경기도 지역문화 플랫폼 육성사업 미술인문학-아트콜로키움	삶과 문화예술기행	539	
			현대미술의 다양성과 미래비전	310	
2020 박물관·미술관 주간 '다(多)가치, 다같이' 썸바디 프로젝트온라인 교육영상		HUG-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몸짓	185		
		DREAM TREE-100가지의 꽃이 피어나는 나무	158		
		이음콘서트 - 이시영	54		
		이음콘서트 - 나비타	69		
		이음콘서트 - 가우사이	141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뮤지엄스퀘어 - 소리디딤	115		
		뮤지엄스퀘어 - 이시영	6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미술관 음악회 - 조운성	45		



## 2020 공모사업 현황 우수한 기획으로 선정된 공모사업 프로그램

주최	사업명	사업기간	프로그램명	비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동네방네 예술가〉	2020. 3.~12.	찾아가는 예술가	
			작가의 작업실	
			꼬물꼬물 예술놀이	
			미술관 음악회	
			미술관 해프닝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박물관 · 미술관 주간 「다양성과 포용성 증진 프로그램」 〈다(多)가치, 다같이〉	2020. 8.14.~23.	섬바디 프로젝트 - HUG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몸짓”	
			섬바디 프로젝트 - DREAM TREE “100가지의 꽃이 피어나는 나무”	
			이음콘서트	
경기문화재단	경기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영동한 예술꾸러미〉	2020. 6.~12.	영동한 상상	
			영동한 표현	
			영동한 관찰	
			영동한 몸짓	
경기도	경기도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히든아트-숨은예술찾기〉	2020. 4.~12.	프로젝트 아트팜	
			미술관x지역청소년 상상캠퍼스	
			미술인문학-아트콜로키움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구석구석 예술놀이〉	2020. 7~12.	컬러링워크	
			양평아트워크	
			찾아가는 문화의 날	
			미술이야기-아티스트 토크	
			뮤지엄 스퀘어	
			한 뼉 프로젝트	



##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양평

1개 읍(邑)과 11개 면(面)이 하나 되어 만들어가는 양평군

국내유일의 청정지역에서 예술문화가  
지역의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고장이다.



# Y M M U S E U M

## 02

2020 지역작가 실태연구

개요

양평지역 소개



## 지역작가 실태연구 개요

양평군립미술관의 <지역작가실태연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미술인과 미술단체의 실태를 분석하여 자료를 체계화하고, 지역과 지역미술인이 문화공동체를 만들어 양평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다양한 예술기획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립미술관은 지역문화 1번지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고, 양평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작가들의 실태연구를 통한 문화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 <2020 지역작가 실태연구>를 2019년에 이어 추진하였다. <지역작가실태연구>는 양평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는 미술인과 미술단체의 활동을 조사·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연구 책자 발간을 통해 미술인 현황 제고는 물론, 지역작가들이 자족하며 성장하는 동력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양평지역 미술 문화 공동체 활동에 기여하고 문화예술 도시 양평의 위상을 높이고자 추진되었다.

2020 지역작가 실태연구는 금년도 4월을 기점으로 단계적인 추진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양평에 거주하고 있거나 창작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미술인, 지역 미술 단체 소속작가 및 생활문화 예술인, 지역 미술인으로서 발표회를 가져오거나 이와 동등한 활동을 하는 미술인을 대상으로 한다.

실태연구 추진 방법은 다음과 같다. 미술관 기획전 및 양평미술인들의 단체전의 전시 기간 발간된 도록을 수집하고,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하여 지역 예술단체의 정보를 수집한다. 연구자료는 작가들의 구성인원 및 장르, 주요 기법, 직업별 현황, 창작활동 기간 분포 등 개개인과 관련된 내용과 동시에 전업 여부, 시기별 및 사유별로 분석한 전업 현황, 지역별 거주 현황 등 양평군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 등을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자료(설문지)를 작성하고 이메일, 우편, 전화, SNS 등으로 배포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회수 및 접수한다. 접수된 설문지를 기반으로 각 항목을 분석하여 자료집을 제작한다.

먼저 총 856명의 지역작가 중 별별 아트마켓에 참가하는 약 100명의 지역셀러 작가를 제외하고, 도록 등을 근거로 파악한 작가의 수는 총 756명이다. 이 중 양평에 거주하지도, 양평에 작업실을 두지도 않았으나 양평미술인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된 작가 109명을 일차적으로 대상 작가에서 제외하였다. 하여 남은 647명의 작가들 중 작고하거나 (11명) 사전 조사를 통해 양평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것으로 확인된 작가(38명)를 제외한 600명을 연구대상 작가로 정하고 설문을 배포하였다. 단, 설문 참여 요청을 받았으나, 작가로서의 활동 중단했거나, 본인의 활동이 본인을 작가로 정의하기에 부족하다며 설문 참여를 사양한 12명의 작가 및 주소 및 연락처 확인이 불명확한 28명을 제외하여 총 설문대상 작가는 558명으로 정리하며, 이 중 설문에 응답한 양평 작가는 총 331명으로 59.3%의 응답률을 보였다. 본 실태연구는 이들의 자료를 접수하여 정리된 내용을 기준으로 주제별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른 지역 작가로서 실태연구 설문지를 접수한 작가들도 다수(19명) 있었으나 미술관의 작가 데이터베이스에는 추가하되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통계분석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실태연구자료를 통해 지역미술인의 활동영역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 내 작가 분포도를 활용한 아트맵(ART MAP) 등의 제작을 통해 지역 브랜드 형성에 이바지하며, 특히 군민이 문화의 수요자로서 문화적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기획의 기틀이 되는 중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더욱이 올해는 실태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0 미술 여행-3, 가을 프로젝트 양평 신화 찾기-4 [포스트 양평] 展을 개최하게 되어 실태연구의 가치를 증명하였다.

## 실태연구 과정

### 1. 자료조사 및 수집

유관기관 협조로 지역단체 및 전시자료 수집

### 2. 연구자료 구성

연구목적에 기반으로 각 항목 구성

### 3. 연구자료 배포

이메일, 전화, 우편, SNS 등을 통해 설문자료 배포

### 4. 자료접수 및 분석

설문접수 후 항목별 분석 및 총평

### 5.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시기획 및 교육프로그램 활용가능한 작가DB구축

### 6. 연구자료집 제작

시안 교정 후 자료집 발간

**설문대상자 선별과정**

구분	인원	비고
지역 전체현황	856	
대상 제외	298	
생활문화예술가	100	아트마켓셀러
타지역거주 단체소속 작가	109	
작고작가	11	
이주작가	38	
활동중단 및 참여사양	12	
주소 및 연락처 불명	28	
<b>최종 배포인원</b>	<b>558</b>	

**실태조사 설문접수 현황**

설문대상자	설문 응답자	응답률	비고
558	331	59.3%	생활문화예술가 (지역셀러 작가) 제외

**단계별 자료연구**



3.15 타당성 수집 및 사업계획안 작성

3.26 예산확보 및 계획수립



4.15 단체/비단체 작가 사전조사 및 자료 정리

4.25 지역작가 협조공문 및 설문지 발송

5.01 미발굴 작가 리서치

5.12 추가작가 협조공문 및 설문지 발송

5.15 1차 설문접수 마감

5.30 2차 설문접수 마감



7.01 접수 미술인 자료 정리

9.01 추가작가 발굴 및 자료접수

10.1 정리한 자료 항목별 분석 및 통계 작성

10.20 자료집 1~3차 교정  
단체별 작가 자료집 정리



10.30 지역작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11.10 2020 지역작가실태 연구자료집 제작



## 양평지역 소개

전통문화와 선조들의 지혜가 살아있는 양평  
의병의 정신, 충효사상이 고장마다 다채로워 ...



### 1개 읍(邑)과 11개 면(面)이 하나 되어 만들어가는 양평군

양평군은 1908년 순종 황제의 칙령에 따라 양근군과 지평군을 병합하여 양평군이라 칭한 것이 시초이다. 이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양평군 소속이었던 남종면이 1914년 당시 광주군으로 이속되고 설악면이 1942년 가평군으로 이속되었다. 1963년 당시 여주군 관할이었던 개군면이 양평군으로 편입되었고 1973년에는 양평군 서종면의 일부가 가평군으로 변경되었다. 1979년 양평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지금의 양평군이 형성되었다. 양평군은 경기도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동쪽으로는 강원도 홍천군, 동쪽으로는 횡성군, 남동쪽으로는 강원도 원주시, 남쪽으로는 경기도 여주시, 남서쪽으로는 경기도 광주시, 서쪽으로는 경기도 남양주시, 북쪽으로는 경기도 가평군과 인접한 지역이다.

또한, 양평군의 면적은 877.69km<sup>2</sup>로 서울시의 1.45배이며, 1읍 11개면, 271개리 802개반으로 구성된 중소도시이다. 각 면은 강상면, 강하면, 개군면, 단월면, 서종면, 양동면, 양서면, 옥천면, 용문면, 지평면, 청운면 등이고 읍은 양평읍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구는 54,422세대 총 117,670명이다.

강상면은 조선시대 양근군의 지역으로 남시면(南始面)이라는 이름이 있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조정으로 여주시 금사면의 전북리, 용담리의 각 일부와 합친 이후 그 위치가 남한강의 위쪽이라 하여 이름을 강상면으로 지었다. 강상면은 동북으로는 양평읍, 서로는 강하면, 남으로 금사면과 산북면이 접하고 있으며, 서쪽과 남쪽은 험준한 산지로 이루어졌는데 가장 높은 산은 양자산이다. 면적의 23%가 논과 밭이고 총 인구 4,372세대 10,074명 중 대부분이 농업인구인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문화시설로 양평나루캐츠택제공원이 있다.

강하면은 조선시대 양근군의 지역으로 양근읍 남쪽 중앙에 위치해 남종면이라 하였으나, 1914년 행정구역 조정으로 광주군 퇴촌면의 영동리와 합치고 그 위치가 남한강의 아래쪽이라 하여 이름을 강하면으로 지었다. 강하면은 양평읍을 중심으로 양평군의 남서쪽 경계

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을 제외한 방향을 양자산, 백병산 등 높은 산이 에워싸고 있다. 총 인구 2,199세대 4,442명이고 주로 쌀·보리·채소를 생산한다. 문화시설로 기흥성 모형 박물관이 있으며 축제로는 항금리 화동화제가 있다.

개군면의 이름은 마을의 산 이름인 개군산에서 따와 지었으며 개군산의 이름은 선조 25년 당시 주민과 관군이 협력해 일본군을 물리친 역사에서 유래한다. 이 지역은 여주시와의 경계에 위치해 있으며 1963년 대한민국 행정구역 개편 이전까지만 해도 여주시에 속해 있던 지역이다. 총 인구 2,471세대 5,170명이 있으며, 특산물로 한우, 비듬나물, 산수유가 있는데 특히 개군 한우의 경우 뛰어난 맛으로 전국에서 유명하다. 문화행사로 매년 산수유 한우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관광지로 산수유마을(내리, 주읍리)이 있다.

단월면의 이름은 단구월사(丹丘月謝)에서 유래하며, 그 뜻은 '밝은 달 아래 신선이 사는 정자마을'이다. 단월면은 양평군의 동북부에 위치하며 북동쪽으로 홍천군, 북서쪽으로 가평군과 맞닿아 있다. 또한, 단월면은 내륙산간지역으로 석산계곡 등 경치가 아름다운 지역이기도 하다. 이 지역에 사는 인구는 1,938세대 3,808명이며 특산물로는 고로쇠나무에서 채취한 고로쇠 수액이 있다. 관광지로 소리산마을과 산음자연휴양림이 있다.

서종면의 명칭은 군의 서북쪽 끝에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붙여진 서종면(西終面)이 유래이며 이후 서종면(西宗面)으로 바뀌었다. 서종면은 북한강과 인접해 있고 동쪽으로 가평군, 서쪽으로 남양주시와 맞닿아 있다. 인구수는 4,710세대 9,451명으로 특산물로는 산더덕, 표고버섯, 잣이 있다. 관광지로 통방산, 청계산, 중미산, 벽계계곡 등이 있고, 문화시설로 화서 이항로 기념관,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이 있다. 서종면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며,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전통적인 농업을 구현하고 있는 지역이다.







양동면의 명칭은 군의 동쪽 끝에 자리한다는 이유로 붙여진 이름이다. 동쪽으로 원주시와 횡성군이, 남쪽으로 여주시와 잇달아 있다. 면적의 79%가 임야이며 인구는 2,317세대 4,704명이다. 특이사항으로, 양동면은 1895년 이항로 선생의 화서학파 문인인 안중응의 주도 하에 포수 400여명이 전국 최초로 을미의병을 일으킨 역사가 있다. 이 역사는 이웃 지평면과 함께 양평군을 의향의 고장이 되게 했으며, 그와 관련된 문화재로 의병장 이춘영 묘가, 기념물로 을미의병추모비가 있다.

양서면의 명칭은 군의 서쪽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특성이 유래이다. 그 유래대로 양평군의 서쪽 경계선에 위치하여 남서쪽으로 광주시, 북서쪽으로 남양주시가 잇달아 있다. 인구는 5,908세대 12,659명으로 특산물로는 배, 표고, 딸기 등이 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가 있는 지역으로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양평군 내에서도 특히 아름답다. 관광지로는 앞에서 말한 두물머리와 두물머리물래길, 남한강 자전거길, 청계산 및 부용산, 문화시설로 세미원, 몽양 여운형 생가 기념관이 있다.

옥천면의 명칭은 옥천(玉泉)이라는 뜻대로 지역 곳곳에 구슬처럼 맑은 샘이 있어 붙여졌다. 남쪽 경계에 남한강이 있으며, 동쪽 경계에 용문산이 있고, 북쪽으로 가평군이 맞닿아 있다. 인구는 3,463세대 7,290명이며, 냉면으로 유명한 지역으로 크고 작은 냉면집들이 먹거리촌을 형성한다. 남한강, 사나사, 중미산, 유명산 등 자연환경이 아름다워 설매재 휴양림, 중미산자연휴양림 등 자연을 활용한 여러 관광지가 있다. 문화시설로 양평군충박물관, 문화재로 양근향교가 있다.

용문면은 조선시대 지평현 상서면, 하서면 일대가 1914년 행정구역 변경 때 합쳐져 형성되었으며, 그 이후 용문산과 용문사에서 따와 지명을 지었다. 또한, 용문면은 양평군 내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가 7,732세대 17,567명으로 양평읍을 제외하고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문화재로 용문사, 운계서원, 문화시설로 양평 친환경농업

박물관,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관광지로 중원계곡 등이 있다.

지평면은 본래 지평군의 지역으로 지평 읍내라 하여 군내면이라 했으며, 이 군내면과 남면, 하동면을 합쳐 1908년 양평군 지제면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 여주시 대신면의 천후곡리 일부, 대송면 곡수동 일부, 산촌의 일부가 추가되었다. 이후 2006년에 들어서 명칭을 지평면으로 개칭했다. 이 지평면은 양평군의 동남쪽에 위치해 남쪽으로 여주시와 맞닿아 있으며, 을미의병이 일어난 지역으로 양동면과 함께 양평군을 의향의 고장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관련한 문화시설로 지평리 전투 기념관이 있다. 인구는 3,551세대 7,153명으로 특산물로 막걸리, 느타리버섯 등이 있다. 관광지로 구둔 영화마을이 있다.

청운면의 명칭은 철산유수 벼슬을 지냈던 신세정이면 전체를 돌아본 후 지은 ‘청운팔경(靑雲八景)’이라는 시에서 유래한다. 청운면은 양평군의 동쪽에 위치해 동쪽으로 강원도 홍성군, 북쪽으로 강원도 홍천군과 맞닿은 지역이다. 남쪽에 비룡산, 북쪽에 갈기산이 있어 산지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인구는 1,904세대 3,736명으로 특산물로 잡곡, 수박, 과수가 있다. 또한, 청운골 생태마을과 신론리 외갓집 체험마을, 신론 도원리 산촌생태마을 등 여러 생태마을이 있는 지역이다.

양평읍은 1979년 5월 읍으로 승격하였으며, 북쪽으로 용문면, 북서쪽으로 옥천면, 남서쪽으로 강상면, 남동쪽으로 개군면과 맞닿아 있다. 북동쪽 경계에 용문산이, 남서로 백운봉이 솟아 있다. 남한강으로 인해 평야지대가 형성되었고, 인구수는 12,890세대 30,818명으로 양평군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교통이 발달해 중앙선이 통과하고 관광지로 경기도 내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아온 양평군립미술관을 비롯하여 양평 쉬자파크 공원 등이 있어 수도권 지역 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 자주 찾는 지역이기도 하다.



2020

양평군립미술관 지역작가  
실태연구 자료집

# Y M U S E U M

## 03

### 실태연구 결과

1. 양평 작가 단체 현황
2. 지역별 거주 현황
3. 양평 전입현황
4. 작업환경 현황
5. 장르 및 주요기법별 현황
6. 기타 현황

## I 양평예술단체 현황



양평의 예술단체 시초는 1998년 지역의 예술인들이 모여 양평예술인협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양평예술인협회는 양평 맑은 물 사랑 예술제 등 여러 행사를 추진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으며, 이 중에는 미술인회의 활동이 두드러져 양평미술협회로 개칭하였다.

양평미술협회의 정식 명칭은 한국미술협회 양평지부이다. 이 양평미술협회는 예총, 즉,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의 산하단체로서 1999년 한국미술협회 양평지부로 조직되었다. 이후 양평문화예술계는 미술협회, 국악협회, 문인협회 3개 단체가 중심으로 활동을 하여 양평예총이 발족되었다. 이로 인하여 양평미술협회는 명실공히 양평예총 산하단체가 되었다.

양평미술협회의 1회 회원전은 2000년 갤러리 아지오(강상면 병산리)에서 개최되었고, 이는 다양한 공간에서 열릴 전시회들의 시초가 되었다. 또한, 양평미술협회는 제7회, 제10회 양평 맑은 물 사랑 예술제에 참여해 양평 맑은 물 사랑 미술관(양평 군민회관 지층)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양평의 다양한 미술관들이 참여하는

2008년 프레 양평환경미술제부터 제6회 양평환경미술제를 개최하였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양평미술협회는 세간의 미술인들을 협회로 영입하는 구심점이 되었다.

그리하여 양평미술협회를 비롯한 물외리미술인협회(2003년), 양평사생회 (2010년), 양평수채화작가회(2017년), 양평청년작가회(2016년), 양평여성작가회(2002년), 한국사진작가협회 양평지부(2007년), 한국환경사진협회 양평지회(1995년), 양평유수회(2018년), 양평규방공예연구회(2014년), 강상묵숙(2012년), 강상징검돌예인회(2015년), 조형예술연구회(2007년), 양평거미동(2011), 북한강미술인회(2004), 양평예술인 예비조합(2013) 등의 단체들이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2020년에는 양평문화예술인네트워크가 새로 조직되기도 하였다.

지역작가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활동을 해오고 있는 작가와 별별 아트마켓에 셀러로 참여하는 생활문화예술가를 포함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예술단체 창립년도 및 인원 통계

단체명	창립년도	인원	비고
양평미술협회	1999	250	
물외리 미술인협회	2003	14	
양평사생회	2010	53	
양평수채화작가회	2017	5	
양평청년작가회	2016	35	
양평여성작가회	2002	22	
한국사진작가협회 양평지부	2007	28	
한국환경사진협회 양평지회	1995	40	
양평유수회	2018	17	
양평규방공예연구회	2014	15	
강상묵숙	2012	26	
강상징검돌예인회	2015	34	
조형예술연구회	2007	12	
양평문화예술인네트워크	2020	-	
북한강미술인회	2004	28	
양평거미동	2011	12	
양평예술인 예비조합	2020	50	
비단체예술가	-	123	
생활문화예술가	-	100	설문대상자 제외

## II 지역별 거주현황

### 2-1 양평군 내 지역별 작가 거주 현황



양평군 지역별 작가 현황

강상	강하	개군	단월	서종	양동	양서	옥천	용문	지평	청운	양평읍	통합
47	23	17	6	39	9	42	33	26	23	4	62	331

양평지역에서 미술가로서의 파악된 총 581명의 작가들 중 설문응답자 331명의 거주지역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지역별로 구분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강상면 47명, 강하면 17명, 개군면 11명, 단월면 3명, 서종면 22명, 양동면 8명, 양서면 33명, 옥천면 26명, 용문면 17명, 지평면 16명, 청운면 3명, 양평읍 56명이다.

내용	지역전체 작가	설문 응답 작가
합계	581	331
단체가입 미술가	402	280
단체미가입 미술가	97	43
무응답	82	8

## 2-2 미술단체별 거주현황

다음은 미술단체별 양평 거주현황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331명의 지역별 세부거주 현황을 분석하였다. 아래 현황은 각 단체별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단, 설문에 참여하지 않아 거주지역을 파악 할 수 없는 인원은 무응답으로 표기하였다.



### 양평미술협회 | 250명

양평지역을 대표하는 미술단체로 지금도 다양한 작가들을 영입하고 있으며 2000년 갤러리 아지오에서 1회 회원전을 개최한 이후 매년 정기전을 개최하고 있다.

강상	강하	개군	단월	서종	양동	양서
14	14	11	-	13	6	21
옥천	용문	지평	청운	양평읍	무응답	통합
18	13	10	1	33	96	250



### 물뒀리 미술인협회 | 14명

물, 강, 산, 동네라는 의미를 가진 물뒀리미술인 협회는 양평에 거주하는 여성작가로 결성된 단체로, 2003년 첫 전시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정기전을 열고 있으며,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다.

강상	강하	개군	단월	서종	양동	양서
1	2	-	-	1	-	2
옥천	용문	지평	청운	양평읍	무응답	통합
1	-	2	-	2	3	14



### 양평사생회 | 53명

양평사생회는 양평지역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사생활동을 해온 단체이며, 회원 중에는 양평 외 지역에서 거주 및 활동하는 작가들과 일반 시민들도 포함되어 있다.

강상	강하	개군	단월	서종	양동	양서
6	3	1	-	1	-	3
옥천	용문	지평	청운	양평읍	무응답	통합
1	1	2	-	5	30	53





**양평수채화작가회 | 5명**

양평에 거주하는 수채화 작가들이 서로 뜻을 합쳐 2017년 결성된 단체이며, 첫 전시회는 2017년 6월 양평군립미술관에서 열렸다.

강상	강하	개군	단월	서종	양동	양서
-	-	-	-	-	-	1
옥천	용문	지평	청운	양평읍	무응답	통합
-	3	-	-	1	-	5



**양평청년작가회 | 35명**

양평 청년 작가들의 단체로 여기서 ‘청년’이란 실제 나이가 아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움을 원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

2016년 첫 회원전 이후 매해 정기전을 개최하고 있다.

강상	강하	개군	단월	서종	양동	양서
2	1	-	-	4	-	5
옥천	용문	지평	청운	양평읍	무응답	통합
2	4	2	1	3	11	35



**양평여성작가회 | 22명**

전원 여성 작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평 뿐만 아니라 타지역 작가들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2002년 첫 회원전을 맑은 물 사랑 미술관에서 개최한 이후 2019년 현재 17회 전시회를 열었다.

강상	강하	개군	단월	서종	양동	양서
1	-	2	-	-	-	-
옥천	용문	지평	청운	양평읍	무응답	통합
2	1	1	-	2	13	22



**한국사진작가협회 양평지부 | 28명**

한국사진작가협회 양평지부는 전문 사진작가와 생업과 창작활동을 겸하는 일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강상	강하	개군	단월	서종	양동	양서
3	-	-	-	-	1	2
옥천	용문	지평	청운	양평읍	무응답	통합
1	1	-	1	7	12	28





**한국환경사진협회 양평지회 | 40명**

한국환경사진협회 양평지회는 대부분 전문적인 환경사진작가로 구성된 단체로 주변 환경을 사진을 통해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는 단체이다.

강상	강하	개군	단월	서종	양동	양서
1	-	-	1	-	-	2
옥천	용문	지평	청운	양평읍	무응답	통합
2	-	1	1	4	28	40



**양평유수회 | 17명**

옥천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중 한 분야인 미술부로 유채와 수채화를 공부하는 단체이다. 2018년 첫 전시회 이후 2019년 현재 2회 전시회를 개최했다.

강상	강하	개군	단월	서종	양동	양서
1	-	-	-	-	-	2
옥천	용문	지평	청운	양평읍	무응답	통합
2	-	1	-	1	10	17



**양평규방공유회 | 15명**

전통문화예술인 침선공예를 전승·계승·창작·연구하며 국전을 비롯한 전국 공모전에서도 다양한 수상경력을 지닌 단체이다.

강상	강하	개군	단월	서종	양동	양서
2	1	1	-	2	-	-
옥천	용문	지평	청운	양평읍	무응답	통합
-	1	2	-	3	3	15



**강상묵숙 | 26명**

양평 평생학습 서예동아리로 주로 현역에서 은퇴하신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첫 전시회를 열었고, 강상묵숙을 알리는데 창간호가 발간되었다.

강상	강하	개군	단월	서종	양동	양서
7	1	-	-	-	-	1
옥천	용문	지평	청운	양평읍	무응답	통합
-	-	-	-	1	16	26



**강상징검돌예인회 | 34명**

강상징검돌예인회는 작가와 생활예술가로 구성되며 예술이 주민들에게도 정착될 수 있도록 마을디자인, 아트마켓 등 다양한 노력을 하는 단체이다.

강상	강하	개군	단월	서종	양동	양서
5	1	-	-	-	-	-
옥천	용문	지평	청운	양평읍	무응답	통합
-	-	-	-	-	28	34



**조형예술연구회 | 12명**

조형예술연구회는 주로 연세가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 작가보다 취미로 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이다.

강상	강하	개군	단월	서종	양동	양서
1	-	-	-	-	-	-
옥천	용문	지평	청운	양평읍	무응답	통합
-	-	-	-	2	9	12



**양평거미동 | 12명**

'큰그림을 그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전국 벽화봉사단체 거미동(巨美洞)의 양평지부이다. 사회적으로 나눔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벽화작업 및 미술을 통한 나눔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년에 한번씩 정기전을 하고 있다.

강상	강하	개군	단월	서종	양동	양서
-	-	-	-	-	4	-
옥천	용문	지평	청운	양평읍	무응답	통합
-	-	-	-	-	8	12



**북한강미술인회 | 24명**

북한강 물줄기를 따라 서종, 양서 그리고 강건너 남양주에 작업실을 가지고 있는 전업미술인의 모임으로 회원단체전뿐 아니라 2년째 서종면 문호리 서종타워 갤러리에서 회원들의 개인전을 지속적으로 선보여왔다.

강상	강하	개군	단월	서종	양동	양서
-	-	-	-	7	1	2
옥천	용문	지평	청운	양평읍	타지역	통합
-	-	-	1	-	17	24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미술가와 단체가입 상황을 미기재하였거나 파악하지 못한 작가들의 지역별 거주 현황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음과 같다.



**비단체 미술가 | 97명**

여기서 말하는 비단체 미술가란 양평지역 작가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작가를 말한다. 단체활동을 하더라도 양평 외 지역의 단체는 제외한 통계이다. (단, 지역셀러 작가 100명은 제외한다.)

강상	강하	개군	단월	서종	양동	양서
11	7	2	2	15	1	14
옥천	용문	지평	청운	양평읍	무응답	통합
5	12	6	-	16	6	97



**미기재/미파악 | 83명**

설문지를 제출하였으나 단체가입여부를 기재하지 않은 작가와 아직 단체 가입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설문지 미제출 작가의 통계이다.

강상	강하	개군	단월	서종	양동	양서
6	6	2	6	9	1	7
옥천	용문	지평	청운	양평읍	무응답	통합
4	5	3	2	13	19	83

### III 양평 전입현황



#### I 양평군 인구변화 추이



양평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농경문화가 살아 숨쉬는, 천혜의 자연청정 지역이다. 또한 인구대비 가장 많은 예술가가 살고 있는 고장으로도 유명한데, 작가들과 농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예술의 고장으로 마치 프랑스의 바르비종을 연상하게 한다. 이러한 양평이 처음부터 예술의 고장이었으리라 여기는 사람도 있으나 양평 역시 예술의 불모지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양평군은 196-70년대만 해도 인구가 약 12만에 이르는 되는 중소도시였다. 그 당시와 지금의 한국 인구수 차이를 생각하면, 지금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70년대 산업화와 함께 이루어진 전국적인 이농 현상과 옆친 데 덮친 격으로 1974년 팔당댐 준공으로 인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인구 이탈이 더욱 가속화되어 1990년경 양평군의 인구는 8만도 채 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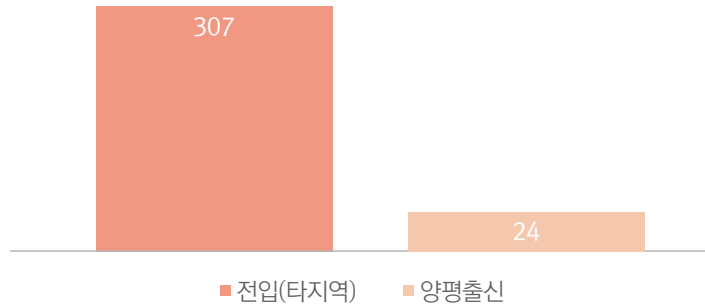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은 작가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1980년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권 팽창현상에 의해 도시의 사람들은 다시 친환경 자연을 찾아 도시를 떠나 이주하게 되

었다. 이와 함께 한동안 농촌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자연을 찾게 되었는데, 양평군은 1980년대부터 전입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작가들도 군소적으로 이주하면서 예술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당시, 예술단체 하나 없던 양평에 1980년 중반부터 이주해 온 작가들은 지역에서 전시회와 예술에 대한 소통을 기하여 왔으며, 1998년에는 양평예술인협회가 결성되고 1999년과 2000년을 거쳐 양평미술협회, 양평예총이 창립된 것으로 양평 문화 예술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양평의 예술적 자양분 확충과 문화 활동은 다시 고향 양평으로 돌아온 작가들 또는 타지역에서 태어나 양평으로 이주한 작가들이 전입 작가들과 함께 양평을 예술의 고장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이 작가들을 빼놓고 양평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배경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 이토록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입 작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작가별 전입 현황은 양평 전입여부와 전입형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전입 여부



설문지 응답자 331명의 전입 여부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7명, 즉 92.7%에 육박하는 작가들이 타지역 출신으로 압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평출신의 작가는 24명이었다.

| 양평 전입사유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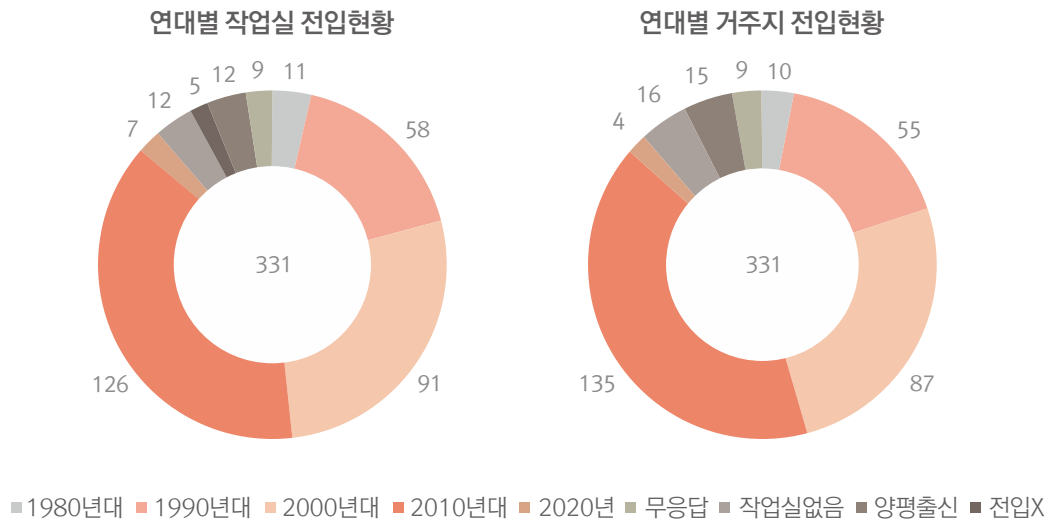


양평으로 전입한 작가들의 전입 사유는 위와 같이 크게 6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였으며 중복선택이 가능했다. 전입사유 중 작업환경이 112명 (36.8%)과 작업여건 부분이 각 113명(34.1%)로 전체에 70%를 차지하는데, 양평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이 작가들의 예술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 다음 높은 비율로는 가족이주 82명, 직장 16명, 기타11명, 소개 9명으로 나타난다.



### | 전입시기 분류

다음은 작가들의 작업실 및 거주지 전입 현황을 1980~2010년대까지 연대별로 구분한 내용이다. 연대별 전입현황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양평지역의 작가유입현황을 바로 알아볼 수 있으며, 향후 양평의 작가유입 경향 또한 짐작해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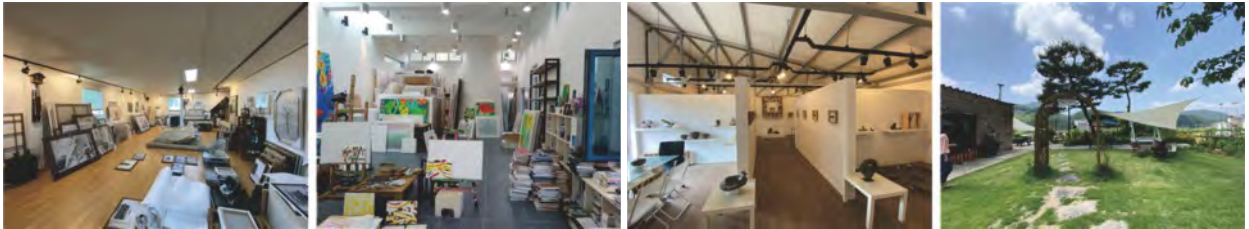


연대별 작업실, 거주지 전입 현황이 파악된 작가는 설문응답자 331명 중 무응답 9명을 제외한 322명으로 각각 315명(작업실 전입), 307명(거주지 전입)으로 나타났다. 먼저 작업실 전입현황의 경우는 작업실이 다른 지역에 있어 '전입하지 않음'으로 표시한 작가가 5명, '작업실 없음'으로 표시한 작가 12명, 무응답 9을 제외한 315명을 분석한 결과로, 1980년대 11명, 1990년대 58명, 2000년대 91명, 2010년대 126명이다. 2020년에 전입한 작가 또한 7명이 있었고 양평출신으로 표시한 작가 중 다시 전입한 년도의 표시가 없어 쪽 양평에 작업실을 둔 것으로 파악된 작가는 12명이었다. 거주지 전입 현황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데, 1980년대 거주지를 전입한 작가는 10명, 1990년대 55명, 2000년대 84명, 2010년대는 135명, 2020년 4명으로 작업실 전입현황과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2010년대에 가장 많은 작가가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출신으로 별도의 전입연도가 없었던 작가가 16명, '거주지 전입하지 않음(타지역 거주)'이 15명, 무응답은 9명이었다.

거주지와 작업실 전입현황을 보면 모두 1980년대에는 전입 작가가 10명 내외로 시작하였지만, 201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 수가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시간이 흐를수록 전입인구 증가율이 가속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다음 항목에서 이러한 전입 현황에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 Ⅳ 작업환경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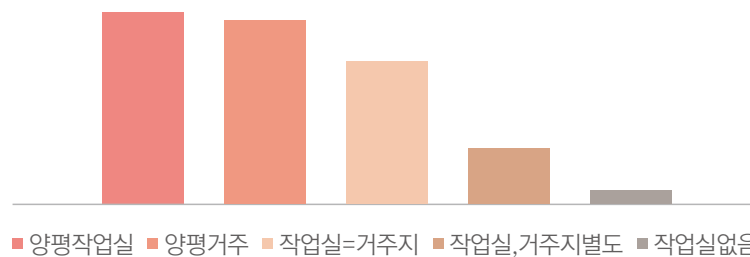


앞선 실태조사 연구에서 양평에 전입한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작업여건’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만 보더라도 작가에게 있어 작업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재고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다. 특히 직접적으로 작품 활동이 일어나는 작업실의 경우는 작가만의 감성을 담은 예술적 창작물이 탄생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의 세계라고도 표현 할 수 있다. 하지만 작업환경이 비단 작업실 하나만을 뜻하지 않는데, 이번 실태조사연구에서는 작업환경을 크게 작업공간 현황과 창작물의 전시현황, 그리고 작가의 직업현황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창작활동에 있어 가장 지대한 역할을 하는 작업공간 현황은 작업실형태와 마련할 당시의 목적 등의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창작과 더불어 작가의 또 다른 과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전시 현황은 국내·외에서 진행한 개인 및 단체 전시를 횡수별로 분류하였다. 또한 작가의 직업현황 항목을 추가하였는데, 순수 창작에만 전념하는 전업작가의 비율과 작가들의 다양한 직업군을 파악하고, 작품판매 계획 등을 함께 분석하여 보다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 4-1 창작공간(작업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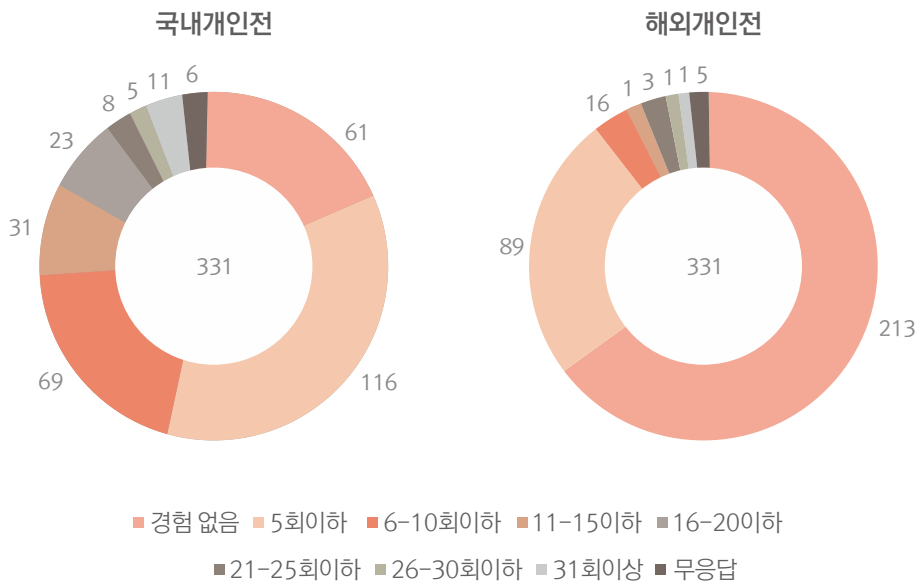
작업실 운영 현황



331명의 응답자 중 작업실을 양평에 두고 있는 작가는 312명, 양평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작가는 309명이었다. 양평에 살면서 작업실을 양평 외 다른 지역에 두고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는 6명이었으며 반대로 양평 외 타지역에거주하면서 작업실을 양평에 둔 작가는 22명이었다. 거주지에 작업실이 함께 있는 경우(별동 포함)는 248명,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별도의 작업실을 둔 작가는 70명이었다. 이 중에는 양평지역 내에 거주지와 작업실을 따로 두고 있는 작가를 포함하였다. 응답자 중 별도의 작업실이 없는 작가는 14명으로 주로 사진 등 별도의 넓은 작업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작가들이 많았고 대학원에 재학중인 작가도 있었다. 각 항목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해보자면, 먼저 거주지와 작업실이 분리 된 70명의 경우 중 33명은 양평 내에서 거주지와 작업실을 따로 두고 있었으며 22명은 작업실이 양평, 거주지는 타지역, 6명은 양평에 거주하며 타지역에 작업실을 둔 작가였다 작업실이 거주지에도 별도로도 있다고 표시한 작가는 3명이었다.

## 4-2 전시 개최 현황

작가의 숙명은 창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시까지 이어진다. 전시회는 작가들에게 있어 중요한 등용문임과 동시에 자신의 작품을 일반 대중들에게 알릴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대중들이 전시회를 통해 작품을 컬렉션 하게 되며 이로써 작가의 작품이 관객을 매료시킴으로써 작품과 관객이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 게다가 자신의 작품을 대중들에게 알리게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명예로운 일이기도 하다. 이번에 살펴볼 것은 이러한 전시회의 기회가 양평군의 작가들에게 얼마나 주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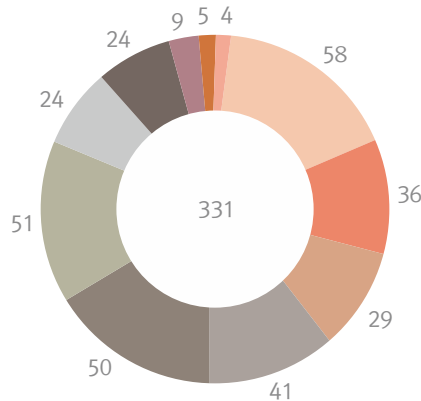
### | 국내 개인전 현황

설문 응답자 331명의 국내 개인전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81.5%에 해당하는 270명의 작가들이 최소 1회 이상 국내 개인전 개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아직 개인 전시 경험이 없는 작가는 61명으로 파악되었다. 보다 상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5회 이하는 116명, 6회 이상 10회 이하는 69명, 11회 이상 15회 이하는 31명, 16회 이상 20회 이하는 23명, 21회 이상 25회 이하는 8명, 26회 이상 30회 이하는 5명, 31회 이상은 11명, 무응답 6명이다. ‘다수’로 표현하여 정확한 횟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1명이다.

### | 해외 개인전 현황

해외 개인전의 경우 5회 이하는 89명, 6회 이상 10회 이하는 16명, 11회 이상 15회 이하는 1명, 16회 이상 20회 이하는 0명, 21회 이상 25회 이하는 3명, 26회 이상 30회 이하는 1명, 31회 이상은 1명, 무응답 5명이다. 자료를 제출한 인원 중 해외 개인전 개최 경험이 없는 작가가 과반 이상인 213명으로, 양평 작가들의 향후 해외 개인 전시 활동의 증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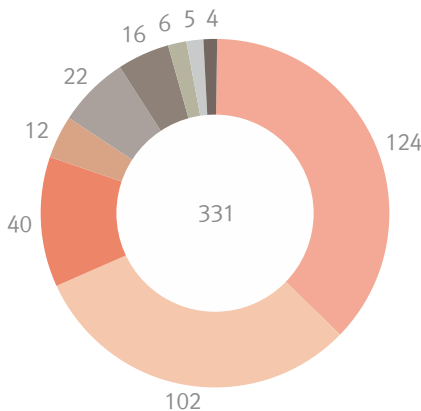




■ 경험 없음 ■ 10회이하 ■ 11-20회이하 ■ 21-30회이하 ■ 31-50회이하 ■ 51-100회이하  
 ■ 100-200회이하 ■ 200-300회이하 ■ 300회이상 ■ 다수 ■ 무응답

### | 국내 단체전 현황

국내 단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단체전 경험이 없는 작가는 4명이었고, 10회 이하 58명, 11회 이상 20회 이하 36명, 21회 이상 30회 이하가 29명, 31회 이상 50회 이하 41명, 51회 이상 100회 이하 50명, 100회 이상 200회 이하 51명, 200회 이상은 51명, '다수' 로 표시하여 정확한 횟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9명, 무응답 5명이었다. 국내 단체전 현황은 각 항목별로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양평작가들의 국내 단체전 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 경험 없음 ■ 10회이하 ■ 11-20회이하 ■ 21-30회이하 ■ 31-50회이하  
 ■ 51-100회이하 ■ 100회이상 ■ 다수 ■ 무응답

### | 해외 단체전 현황

해외 단체전의 경우 응답자의 124명, 즉 37.4%에 해당하는 인원이 해외 단체전 참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응답자 중 해외 단체전 참여 100회 이상인 경우도 6명 집계되었다. 해외 개인전 현황과 더불어 앞으로의 참여율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세부분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 단체전 경험이 10회 이하인 작가가 102명, 11회 이상 20회 이하 40명, 21회 이상 30회 이하가 12명, 31회 이상 50회 이하 22명, 51회 이상 100회 이하 16명, '다수' 로 표시하여 정확한 횟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5명, 무응답 4명이었다.

### 4-3 직업 환경 현황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직업작가들의 생계 및 수입과 관련된 직업 및 작품판매 등 항목이다.

#### | 직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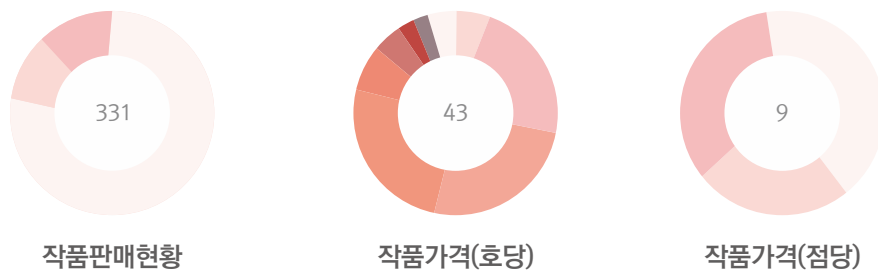


먼저 설문응답자 331명 가운데 무응답 24명을 제외하고 직업현황이 파악된 인원은 307명이며, 크게 3가지 직종으로 이들의 직업을 분류하였는데 분류 기준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창작 활동에만 전념하는 작가를 전업 작가로 분류하였으며, 미술관 및 박물관, 무형문화재나 문화재 보수 등 문화 시설에 종사하거나 문화 관련 직업에 해당되는 작가와 교수·강사 등 미술관련 교육직종을 포함하여 예술관련직업으로 묶어 분류하고, 자영업·서비스업·농업 등 비관련 직업을 하나 비예술직업으로 분류하였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업작가로 207명(67.42%)에 해당한다. 이어서 다양한 예술관련 직업을 가진 작가는 60명(19.54%)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고 비예술관련 직업을 가진 작가가 37명(12.05%)이었으며, 예술관련·비예술관련 직업을 모두 가졌다고 답한 작가가 1명(0.33%) 있었다. 아직 대학원등에 재학중이라고 응답한 작가도 2명(0.65%)이다.

#### | 작품판매 현황



작품판매 현황의 경우 작품을 판매하였거나 추후 판매계획이 있는 사람은 258명으로 나타났는데, 직업현황에서 나타난 전업작가 207명 보다 더 많은 수치의 통계자료로 보아 전업작가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들의 작품 판매했거나 판매의사를 표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작가는 34명, 해당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작가가 39명이었다.

또한 2020년의 설문지에는 작품의 대략적인 가격을 묻는 질문이 추가되었는데 84명 중 해당질문에 답하지 않은 작가가 32명으로 작품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거나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 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작품의 스타일에 따라 호당/점당 가격을 환산하기 어려운 작가들도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응답한 작가중 43명이 호당 가격으로 응답했는데, 호당 5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작가가 2명, 10만원 미만이 10명, 10만원대는 11명, 20만원대가 역시 11명이었다. 30만원대라고 응답한 작가는 3명 40만원대 2명, 50만원대 1명, 50~100만원대가 2명이었으며, 작품별로 상이하다고 답한 작가가 2명이었다. 점당가로 응답한 작가는 9명으로 주로 공예분야 작가였으며 이 중 점당 100만원미만으로 답한 작가는 4명이었고, 500만원 미만이 2명, 1천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작가가 3명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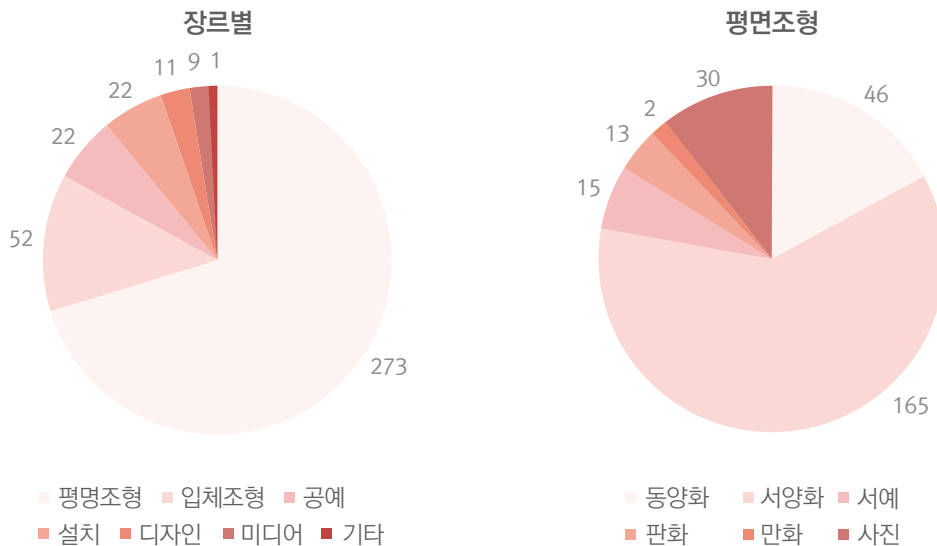
## V 장르 및 주요기법별 작가 현황

미술가들의 활동은 다양한 장르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순수미술과 응용미술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순수미술은 인문학적 사고와 예술적 가치, 즉, 순수창작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그것을 대중과 소통하는 공공성을 내포한 장르를 말한다. 이에 반해 응용미술은 실용성을 갖추어 사람의 일상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자 하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의 장르이다. 따라서 순수미술에는 동양화, 서양화, 조소, 설치 등이 이에 속하며, 응용미술은 크게 산업미술과 생활미술로 분류된다.

특히 산업미술에는 산업과 연관된 대규모의 미술활동, 즉, 시각디자인(편집, 포장, 광고, 컴퓨터, 영상), 산업디자인(공업으로써 제품디자인)이 있으며, 생활미술에는 가내수공업적인 소규모의 미술활동인 공예(금속공예: 악세사리, 금은세공, 장신구, 목공예: 가구, 목조공예, 도자공예: 창작도예, 실생활도예, 유리공예: 산업유리, 유리섬유, 생활유리, 섬유예술: 염색, 태피스 트리, 의상디자인)가 이에 속하며, 이 장르들은 창작공예와 생활공예로 구분되어 환경 또는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필수품들이 되고 있다.

이번 실태연구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장르(동양화, 서양화, 조소, 공예, 서예, 판화, 디자인, 설치미술, 미디어아트, 만화, 사진, 기타)와 더불어 주요 기법별(사실주의, 표현주의, 추상주의, 설치미술, 미디어아트, 기타) 현황을 정리하였다.

### 5-1 양평군 전체 장르분포 현황



평면조형(평면회화)						입체조형	공예	설치	디자인	미디어	기타
동양화	서양화	서예	판화	만화	사진	52	43	22	11	9	1
48	165	15	15	2	30						

먼저 양평작가들의 장르분포 현황을 분석하였다. 장르분류는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동양화, 서양화, 입체(조소), 공예, 서예(전각), 판화, 디자인, 설치미술, 미디어아트, 만화, 사진, 기타 로 분류하였다. 단, 전체 장르분포 현황에서 평면에 해당하는 장르는 동양화, 서양화, 서예, 판화, 만화, 사진으로 묶음하였으며, 조각 등 공간성을 이루고 있는 3차원의 조형장르는 입체로 정의하였다. 각 항목은 모두 중복선택이 가능했으며, 두 개 이상의 장르를 전공한 사람은 48명으로 집계되었다.

### 5-2 주요 기법별 작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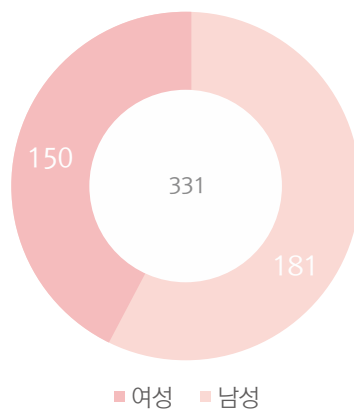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주요 기법별 작가 현황을 알아보았다. 주요기법은 크게 사실주의, 표현주의, 추상주의, 설치미술, 미디어아트, 기타로 나누었으며, 현대미술에서 기법을 분류하는 것이 점점 그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계를 위해 해당 질문을 포함하였다. 또한 둘 이상의 기법을 사용하는 작가가 많은 만큼 복수응답을 허용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은 표현주의로 125명이다. 그 다음으로는 사실주의 121명, 추상주의 90명, 설치미술 40명, 미디어아트 9명, 서예 10명, 무응답 12명이다.

## VI 기타 현황 (성별, 연령별, 직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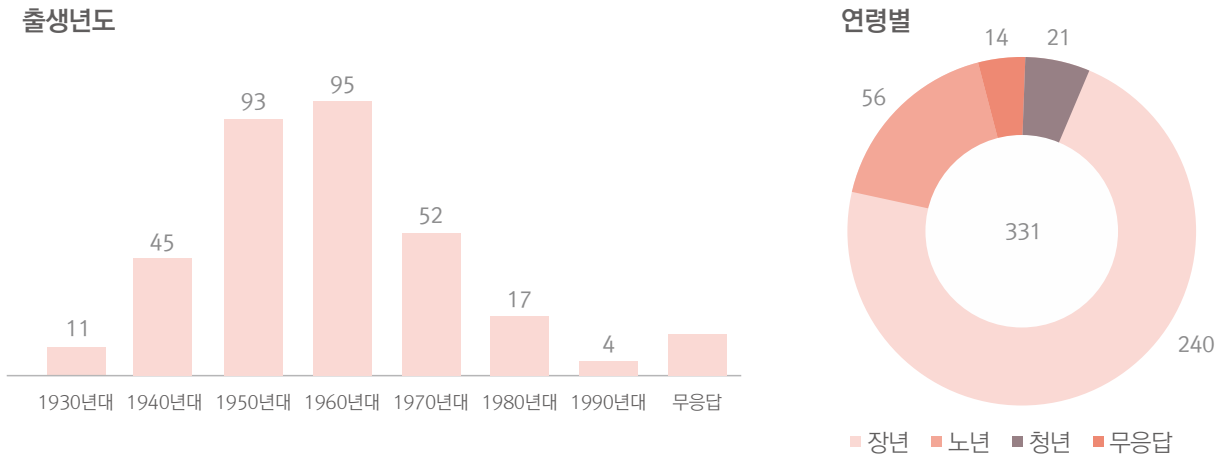
앞에서 진행되었던 다양한 실태연구 현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평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작가에게 편안한 작업여건 등으로 1980년대 이후부터 현대까지 작가의 유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양평군은 다양한 연령대와 성별, 직업군이 공존하고 있는 작가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 이러한 작가들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6-1 양평군 작가 성별 분포



전체 설문 응답자 성별 현황은 남성 181명, 여성 150명으로 각각 54.7%, 여성, 45.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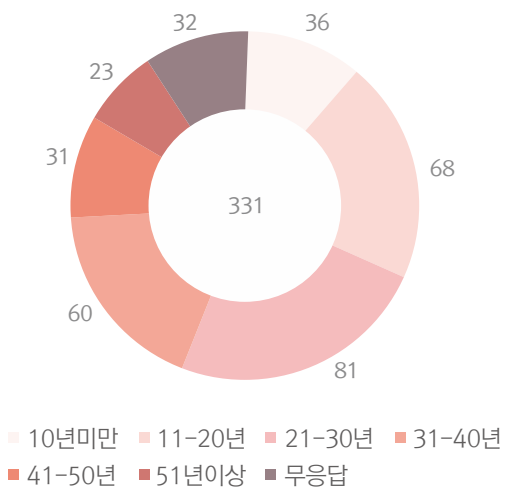
### 6-1 양평군 작가 연령별 분포



설문응답자 331명 중 나이를 기재하지 않은 14명의 작가를 제외하고 317명의 출생년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30년대에 출생한 작가는 11명, 1940년대 출생한 작가는 45명, 1950년대 출생한 작가는 93명, 1960년대 출생한 작가는 95명, 1970년대 출생한 작가는 52, 1980년대 출생한 작가는 17명, 1990년대 출생한 작가는 4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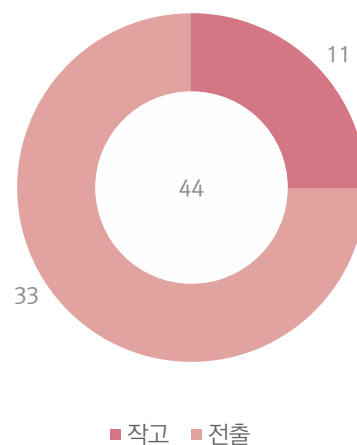
위의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연령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청년작가(20대~30대)는 21명, 장년작가(40대~60대) 240명, 노년작가(70대 이상)은 56명이다. 즉, 청년작가는 6.6%, 장년작가 75.7%, 노년작가는 17.7%이다.

### 7-3 창작기간



얼마나 오랜기간동안 창작활동을 해왔는지 묻는 질문에 10년미만이라고 답한 작가는 36명, 11~20년은 68명, 21~30년은 81명, 31~40년은 60명, 41~50년은 31명, 50년 이상이라고 답한 작가는 23명이었으며, 무응답이 32명이었다.

### 7-4 작고 및 전출 작가 분포



설문지 배포 대상자 중 현재 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작고하신 작가 현황 또한 파악되었는데, 그 중 작고한 작가는 11명이며, 양평에서 거주·활동하다 타 지역으로 전출한 작가는 33명으로 총 44명이 파악되었다 최근에 작고 하였거나 이주한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경우가 상당수여서 실태연구의 필요성이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2020

양평군립미술관 지역작가  
실태연구 자료집

# Y M U S E U M

04

나오며

총평

설문지양식





## 총평

### GENERAL REVIEW

#### 지역의 작가와 군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양평, 양평군립미술관 실태연구를 통한 지역 문화발전 도모

양평군립미술관은 <2020 지역작가 실태연구>를 통해 양평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인과 미술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단체현황, 거주현황, 작업환경, 및 장르 등의 다양한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지역작가 실태연구의 개괄적인 현황 다음과 같다.

양평군립미술관의 데이터베이스와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수집한 전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양평에서 거주하고 있는 작가는 858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양평군립미술관의 생활예술문화 축제인 '별별아트마켓' 셀러작가 100명을 포함한 것으로, 설문대상자는 이들을 먼저 제외한 756명 가운데 다른지역에 거주하며 양평의 미술단체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 작고한 작가들, 양평에 거주했으나 현재는 다른지역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작가 등을 제외하였으며, 실태연구 대상의 전문작가의 수는 586명으로 산정되었다. 이 중 주소나 연락처를 파악할 수 없던 28명의 작가들을 제외한 558명의 작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배포하였으며, 설문응답자는 331명으로 59.4%의 응답율을 보였다.

이를 기반으로 연구한 내용을 종합하여 실태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총평하고자 한다.

먼저, 양평군이 가진 우수한 지리적, 지역적 요건들이 작가들에게 있어 굉장히 매력적인 작업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양평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치열한 창작에 몰두하는 작가들에게 편안함은 물론 영감을 주고, 수도권과 인접한 위치와 편리한 교통은 다양한 전시회와 미술시장을 관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때문에 작가라면 누구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양평에서의 작품 활동을 소망한 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실태연구를 통해서도 그 근거를 명백히 하고 있는데, 앞서 조사한 바와 같이 198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미술인의 유입률이 무려 10배 이상 증가하여 양평의 미술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양평의 자연환경(32%)과 작업여건(34.6%)이 전체의 전입사유의 70%가량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잠시 주목해야 할 것은, 양평의 전입하는 작가들의 대부분이 일정수준의 경제적인 요건과 기반이 다져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조사결과 양평작가의 93.3%가 40대 이상의 중·장년 및 원로작가이며, 그들의 직업 현황 또한 70%에 육박(67.42%)하는 작가들이 전업작가에 해당한다. 이는 경제기반이 안정된 중·장년층 작가들이 여유로운 전원생활과 더불어 작품활동을 하고자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역설적으로는 젊은 작가들을 양평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청년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창작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및 레지던스(Residence)가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실태연구결과를 보면, 20~30대의 젊은 작가의 수는 전체의 6.6%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전입사유 중 직장과 관련된 이주사유가 4.5%로 미미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양평의 부족한 산업현황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약한 청년작가의 전입을 저조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레지던스 유치를 통해 청년작가의 유입을 도모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예술문화를 지역민에게 소개할 수 있다면, 문화예술도시 양평의 입지가 더욱 굳어지리라 생각한다.

이렇듯 양평으로 전입한 작가들은 양평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전입한 작가들은 양평지역에서 10여개의 미술단체를 형성하였는데, 현재 양평 작가의 약 68%가 이러한 지역예술단체들에





소속되어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양평지역에서 계속적이고 활발한 예술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양평미술협회, 물물리 미술인 협회, 한국사진협회 양평지부, 양평사생회 등이 양평군립미술관 대관전시에 꾸준히 참여하며, 지역민과 양평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이는 실태조사 항목 중 양평지역 작가들의 전시현황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가장 높은 전시개최율을 보였던 것이 바로 국내 단체전 참여율 항목이었다. 98.8%의 작가들이 최소 1회 이상의 전시 참여경험이 있었으며, 10회 이상의 전시참여율 또한 81.2%에 육박한다.

이러한 현황에서, 양평군립미술관 역시 지역작가와 협업하며 다양한 창의체험교육과 문화예술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시는 물론이거니와, 전시연계 주말어린이체험교육, 지역학교와 결연하여 진행되는 찾아가는 창의교육 등 맞춤형 교육, 여러 공모사업 선정프로그램, 미술관 음악회 및 별별아트마켓과 같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작가의 활동을 돕고, 지역민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특히 2019~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지역특화프로그램 <동네방네 예술가>와 2020년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 <구석구석 예술놀이>는 그 위상을 드높인 프로젝트라 할 수 있겠다. 쉽게 접할 수 없던 작가의 작업실을 탐방하는 ‘작가의 작업실, 작가와 청소년이 함께 조형작품을 만드는 ‘미술관 해프닝’, 지역작가가 지역 기관을 방문하여 진행되는 ‘찾아가는 문화체험’등 미술관이 지역작가와 함께 진행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이 큰 관심과 반응을 이끌어냈는데, 이 모든 것이 양평의 풍부한 인적 인프라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프라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태연구 데이터베이스의 양과 질이 우수해야만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는데, 2019~20 지역조사 실태연구의 응답률 59.3%는 조금 아쉬운 수치라고 할 수 있겠으나, 지난 해보다 14.9%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되는 바이다.

참여율이 저조한 까닭으로는 양평의 작가들의 대부분이 이메일 활용에 비교적 익숙지 않은 중·노년층이라는 점과 우편이나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설문자료를 접수하기에는 장거리 이동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는 거리적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사실 무엇보다도 실태조사에 대한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적극적인 참여율 증대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정보에 민감한 현대에 있어 개인정보를 요하는 설문자료에 다소 부담을 느끼는 작가들이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설문조사 참여율 활성화 방안으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폼(form)을 이용한 간단한 스마트폰 설문조사 서비스를 통한 방법적 개선을 이야기 할 수 있겠으나, 그에 앞서 실태조사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보다도 지역의 작가들을 위해 기획되었음을 알리고,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양평군의 문화정책에 접목하여 보다 많은 작가들과 지역민들이 실질적인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작가들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설문조사 참여율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양평군립미술관 학예연구실



# 설문지양식

## 2020 지역작가 실태연구 설문지

\* 해당란에 쓰시고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한글:	영문:	한자:
출생년도			이메일
주소	작업실:	연락처	
	거주지:		
전입여부 (양평)	작업실: <input type="checkbox"/> 양평 <input type="checkbox"/> 양평 외 지역 거주지: <input type="checkbox"/> 양평 <input type="checkbox"/> 양평 외 지역 <input type="checkbox"/> 양평 출신	전입시기	작업실:   년   월 거주지:   년   월
전입사유	<input type="checkbox"/> 직장 위치 <input type="checkbox"/> 주위(동료 등)의 소개 <input type="checkbox"/> 가족 이주 <input type="checkbox"/> 자연 환경 <input type="checkbox"/> 작업 여건 <input type="checkbox"/> 기타(                            )		
학력	(대)학교                           학과 <input type="checkbox"/> 학사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박사	창작기간	
활동장르	<input type="checkbox"/> 동양화 <input type="checkbox"/> 서양화 <input type="checkbox"/> 조각 <input type="checkbox"/> 공예(목재, 금속, 유리, 섬유, 도예) <input type="checkbox"/> 서예(전각) <input type="checkbox"/> 판화 <input type="checkbox"/> 디자인(시각, 제품) <input type="checkbox"/> 설치미술 <input type="checkbox"/> 미디어아트 <input type="checkbox"/> 사진 <input type="checkbox"/> 만화(웹툰포함) <input type="checkbox"/> 기타(                            )		
개인 창작공간 보유여부	<input type="checkbox"/> 외부 작업실 있음 <input type="checkbox"/> 거주공간에 별도 작업공간 있음 <input type="checkbox"/> 별도 작업공간 없음	창작활동 외 직업	<input type="checkbox"/> 전업작가 <input type="checkbox"/> 예술관련직업(교수, 강사 등) <input type="checkbox"/> 비예술직업
주요기법	<input type="checkbox"/> 사실주의 <input type="checkbox"/> 표현주의 <input type="checkbox"/> 추상주의 <input type="checkbox"/> 설치미술 <input type="checkbox"/> 미디어아트		
개인전	<input type="checkbox"/> 국내           회 <input type="checkbox"/> 해외           회	단체전	<input type="checkbox"/> 국내           회 <input type="checkbox"/> 해외           회
대표작		대표전시	
예술인단체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활동단체 있음 (단체명: ①   ②   ③    ) <input type="checkbox"/> 활동단체 없음		
월 수입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예술관련 활동을 통한 수입: 비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작품가격	호당 : 점당 :
건의사항			

위 내용은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

작성자: \_\_\_\_\_

# 설문지양식

##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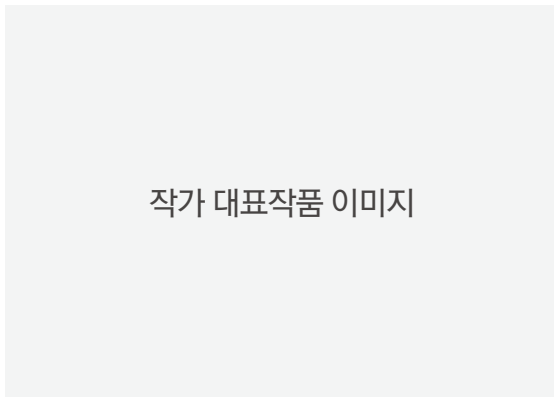
### [성명]

한 글 : \_\_\_\_\_

한 자 : \_\_\_\_\_

영 문 : \_\_\_\_\_

출생연도 : \_\_\_\_\_



###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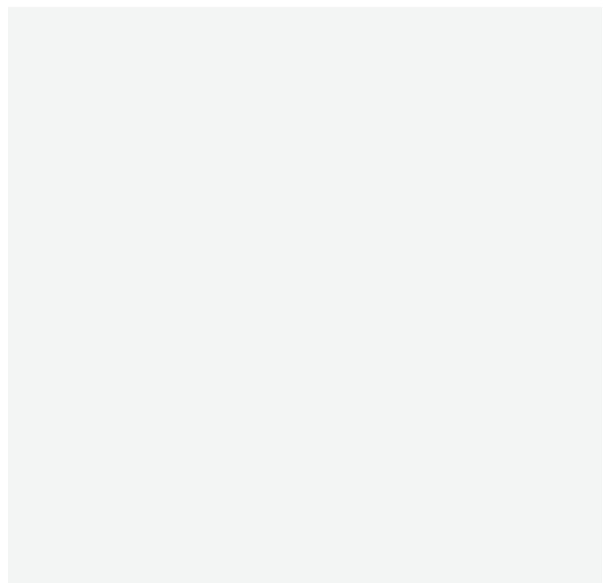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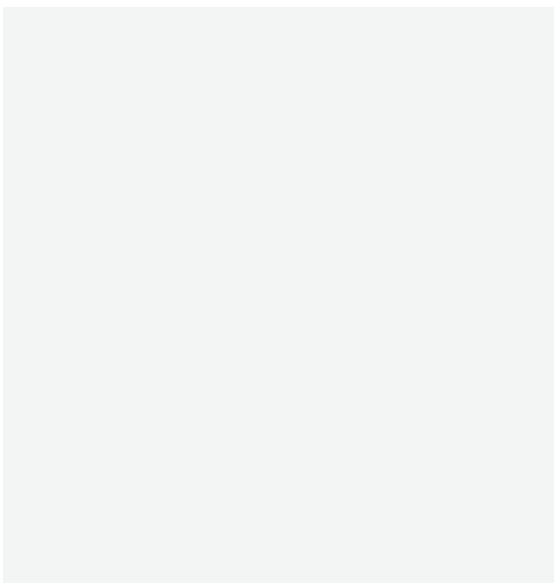
제 목 : \_\_\_\_\_

크 기 : \_\_\_\_\_

재 료 : \_\_\_\_\_

제작연도 : \_\_\_\_\_

### [작가 작업실 전경]



2020

양평군립미술관 지역작가  
실태연구 자료집

# Y M U S E U M

## 05

### 부록

한국 근현대 미술과 서양미술 흐름  
실태연구로 알아보는 미술장르와 표현기법

## 한국 근현대 미술과 서양미술 흐름

### | 한국 근현대 미술

#### 역사의 수난에서도 우리의 것을 찾아내어 예술의 꽃을 피워...

개화기 이후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은 수탈과 강제 징집 등으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젊은이들은 서양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동경으로 유학을 떠나기 시작했고, 이들 중에는 고희동, 김관호, 나해석 등이 한국 최초의 미술학도였다. 1920년대에도 동경미술학교로 미술을 배우기 위한 사람들의 일본 유학은 더욱 늘어났으며, 이들 중 김주경·오지호·김인승 등은 일본에서 사실주의 미술과 일본풍이 아닌 한국적인 상주의 미술을 도입한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당시 총독부는 1922년 신진 작가 발굴을 명분으로 조선미술전람회를 창설하였는데 실제로는 예술가들의 창의성을 제한하고 일본식 미술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아카데미즘(관제미술)은 바로 이 때 만들어져 해방 이후 대한민국 미술전람회까지 이어졌다. 이 시기의 작가들은 식민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려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술 경향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서양과 일본의 아류작이 아닌 한국 고유의 미술을 탐구하는 향토미술 운동 또한 있었다. 또한, 일본 뿐 아니라 서양으로도 유학을 가는 사람이 있었으며 이들을 통해 표현주의, 야수주의, 입체주의 등 모더니즘 미술과 기존 예술 전통을 거부하는 아방가르드 미술이 유입되었다. 태평양 전쟁으로 인한 검열의 강화로 잠시 약세를 보였으나 이러한 기조는 해방 이전까지 계속되었다.

해방 이후 한국의 미술 발전을 취지로 대한민국 미술전람회가 창설되었으나 조선미술전람회와 같이 미술계의 흐름이 움직이게 됨에 따라 창의적인 미술 발전보다는 다양한 활동에 미완적 모습을 보여줬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1950년대 후반에는 반 국전, 반 아카데미즘을 내세우며 기존 미술 경향을 타파하려는 앵포르멜 운동이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거친 붓질과 색채에 중점을 두는 추상적인 미술이 이 당시 작품들의 주요 경향이었다. 박서보를 중심으로 김영환, 김충선, 문우식 4명이 1956년 4인전을 연 것이 그 활동 중 하나이며, 또한 이 시기에 한국미술대상전(1970년) 대상을 수상하면서 부각된 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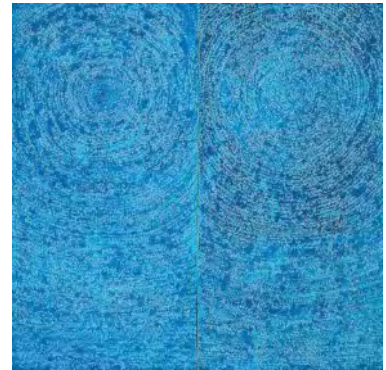
기 또한 앵포르멜 운동에 참여하였고 이후에도 모던아트협회, 신조형파, 창작미술가 협회 등이 이 시기에 주요 활동을 하였다.

1960년대 중반 앵포르멜 운동도 그 활기를 잃었고 대신 일부 예술가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본질적 요소를 지향해 모노크롬(단색화)이 기하학적 추상과 함께 유행하게 되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윤형근의 〈Burnt Umber & Ultramarine〉, 정상화의 〈Untitled 76-8〉 등이 있다. 1960년대 후반에는 강국진의 〈색 물을 뿜는 비밀 주머니〉 등 행위 예술이 시작되기도 했다. 1970년대에는 정부의 검열로 현실을 반영하는 것보다 예술을 위한 예술에 치중하게 되었으며, 세계 미술과의 교류를 통해 개념 미술, 오브제 미술, 행위 예술, 설치 미술, 극사실주의 미술 등 여러 미술 경향이 들어왔다. 또한, 예술가의 창의적 창작 활동을 저해하던 대한민국 미술전람회(국전)가 1979년 폐지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미술대전으로 바뀐에 따라 창의적 창작 활동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다.

1980년대는 군사 정부의 통치가 이어진 시기로 척박한 노동 환경, 빈부격차, 언론 탄압 등으로 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싹트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미술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고발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는 곧 민중미술운동이라 하며 1980년 〈현실과 발언〉 그룹이 사회의 부조리를 미술 작품을 통해 고발성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현실과 발언〉 그룹에 이어 1985년 〈민중미술협의회〉가 설립되어 민중미술운동을 이어나갔다. 이들은 단순히 캔버스를 통해 현실을 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며 그림을 그렸고 걸개 그림 등의 작품을 통해 사회 현실을 표현하여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민중미술운동도 그 활기를 점차 잃어나갔으며, 1991년 사회주의 연방이 해체됨에 따라 세계와의 자유로운 교류가 확대되었다. 이로써 우리 사회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국제적인 교류가 확대되었







다. 이는 미술계에도 탄력을 받게 되었는데, 이 때 주류를 이루는 새로운 개념으로 추구된 컨셉츄얼 아트로서의 기반을 둔 설치미술, 오브제미술, 행위예술, 여성 미술 등 토털 장르의 미술활동이 전개되어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활동과 상생하여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이러한 현대 미술 표현은 급성장된 산업사회 속에서 새로운 미디어 매체의 등장을 낳게 하여, 과학과 예술을 결합시킨 미디어 시대를 탄생하게 하였다.

21세기 들어서 과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첨단 과학과 예술을 접목시킨 융합장르로 새롭게 탄생되었는데, 아날로그 기술을 활용하던 미디어 아트에서 디지털 매체를 새롭게 활용함에 따라 모습을 드러낸 뉴미디어 아트와 기계 장치의 발전으로 등장한 키네틱아트는 풍력, 물 등 친환경을 도입하여 생명성을 자아내는 예술과 기계 장치를 활용한 움직임에 주목한 기계주의 예술이 개발되었으며,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동·식물, 사람 등 실제 생명체를 다루기에 다양성 등 바이오 아트의 진모습을 보여왔다.

작금에 와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뉴미디어 아트는 컴퓨터와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디지털 아트, 컴퓨터 아트, 인터넷 아트 등 다양한 이름으로도 불린다. 작가와 관람객간의 쌍방향 소통이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점에서 다른 미술에서는 볼 수 없던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월드와이드웹(WWW)을 통해 예술가와 관객이 상호 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예술인 웹아트, 과학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작품과 작가, 관람객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심이 되는 인터랙티브 아트가 대표적인 장르가 된다. 그 외에도 연속적인 계층의 물질을 뿌리며 3차원 물체를 만드는 3D 기술을 활용한 3D 프린팅 미술, 기존 데이터 베이스의 관리도구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를 포함한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아트가 성행된다.

오늘에 와서 뉴미디어 아트에는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디어 세계를 비롯하여 어떤 특정한 환경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 주변 상황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세계가 있다. 그리고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세계와 현실과 가상이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드는 혼합현실(MR)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세계 등이 오늘의 미디어 아트의 또다른 진화를 꿈꾸어 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술은 자료실에 박제된 박제품이 아닌 생명력이 있어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생명체와 같은데, 우리 한국 근현대 미술의 흐름을 볼 때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개화기 때는 전통 미술에서 서양의 양식을 받아들인 미술, 일제강점기 때는 서양의 후기 인상주의 미술을 일본화 시킨 미술과 당시 사회를 고발한 리얼리즘 미술의 등장, 서양을 통한 다양한 장르의 유입, 해방 이후에는 국전의 창설로 인해 국전과 반국전으로 양분되는 미술계, 군사 정부의 독재에 대한 반발로 인해 성립된 민중미술과 세계화의 영향을 받아 시작된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까지 우리의 미술은 그 시대가 처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부단히도 받아오며 변화하고 진화해왔다.

그 뿐 아니라 미술은 과학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미디어 아트, 뉴미디어 아트, 키네틱 아트, 바이오 아트 등 새로운 장르와 형식을 등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한국 근현대 미술의 흐름이야말로 미술은 생명체처럼 항상 변화하는 존재라는 가장 큰 확신이며 앞으로의 미술이 어떠한 형상을 띠고 있을지 그것은 새로운 세대의 몫이다.



# 한국 근현대 미술과 서양미술 흐름

## | 서양미술



### 유구한 서구문화 속에서 미술의 가치가 준 정신성

인류의 사회적 활동은 구석기 시대 동굴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들 벽화를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열망을 담아 주술적으로 표현하였다. 사냥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동굴에 벽화를 그리고 다산이 간절하여 여인상을 만들었다. 이 시대의 대표적 미술 작품으로는 라스코 동굴 벽화, 알타미라 동굴 벽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 등이 있다.

미술의 원류가 구석기 시대에 있다면 서양 미술의 시초는 고대 그리스에 있다. 고대 그리스의 미술은 그 초기부터 개인, 즉, 인간에 주목했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당시 다른 지역의 미술이 신과 군주를 위해 존재했다는 것과 비교해 종대한 차이점이다. 그리스 특유의 인본주의적 관점은 이후 서양 미술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스 미술은 인체의 구조를 중시하는 아르카익 양식에서 보다 사실적이고 세련된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고전 양식은 인간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감정을 표현한 헬레니즘 양식으로 발전하였으며, 그리스 시대(B.C.1100년경~B.C.146년)의 대표적 미술 작품으로는 밀로의 비너스, 라오콘 군상 등이 있다.

그리스 문명을 물려받은 고대 로마(B.C.8세기경~A.D.476년)는 미술에서도 그리스의 정신성을 충실하게 계승하였는데, 이상화된 인간상만이 아닌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을 그리는 등 보다 사실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는 조각과 회화 모두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으며, 특히, 고대 로마의 회화는 명암과 원근법을 어느 정도 사용하여 사물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 미술 작품으로는 티투스 개선문, 고뇌하는 모습이 그려진 로마인의 초상, 폼페이에서 발견된 벽화인 꽃을 따는 처녀 등이 있다.

고대 로마(B.C.8세기경~A.D.476년)가 그리스의 미술(B.C.1100년경~B.C.146년)을 계승하고 보존하는 한편, 다른 한 편에서는 새로운 경향의 미술이 탄생했다. 이는 곧 기독교 미술(A.D.2세기~14세기)의 일종인 카타콤베 미술(A.D.2세기~5세기)로 초기 기독교 신도들이

마의 핍박을 피해 있던 지하의 묘실에서 그들의 뜨거운 신앙을 어린양, 비둘기 등 상징적인 사물을 프레스코 기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직접적인 형상 대신 상징물을 사용한 까닭은 기독교가 우상의 숭배와 표현을 금지했기 때문이며, 프레스코 기법으로 벽이 마르기 전에 그리는 것과 마른 후에 그린 것이 있는데, 이 시대에는 성 피터와 마르첼리노 카타콤 천장화가 대표적이다.

카타콤베 미술을 시작으로 서양 미술의 경향은 한동안 기독교 미술이 이끌어나갔다. 기독교 미술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면, 관능보다 정신을, 세속보다 초월을 중시했다는 데 있다. 자연스럽게 이상적 인체의 아름다움이나 사실적 표현과 거리를 두게 된 것이다.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승인된 이후의 기독교 미술은 바실리카 미술, 비잔틴 미술, 중세 미술 세 가지이다. 바실리카 미술은 당시 예배당으로 사용하던 장소에 그려진 벽화를 중심으로 하며 모자이크 그림인 빵과 물고기의 기적이 대표적이다. 비잔틴 미술은 5세기경 동로마에서 시작되었으며 스테인글라스로 만든 모자이크 미술 작품인 테오도라 황후와 수행자들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중세 미술은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으로 구분되어 전해졌으며, 각각 피사 대성당과 아미양 대성당이 유명하다.

14세기~16세기까지는 르네상스 시대로 고대 그리스·로마 시기처럼 중세의 신 중심에서 벗어나 다시 인본주의로 돌아왔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원근법과 해부학이 발달하여 고대 그리스·로마와 비교해도 사실적이고 생생한 인체와 자연의 표현이 가능해진 시대로 유화가 등장해 질감 표현도 풍부해졌다. 대표적인 미술가로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모나리자, 다비드상, 아테네 학당 등이 있다. 이들에 의해 완벽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졌다면, 이들의 사후 진행된 16세기 미술 양식은 조화와 균형을 의도적으로 깨뜨리고자 하는 매너리즘 미술이었다.





17세기 초부터 18세기 전반에는 바로크 미술이 등장했는데, 르네상스 양식과 달리 화려하고 다소 과장된 형태가 특징이다. 또한, 카톨릭 국가의 반종교개혁이 어느 정도 성공함에 따라 다시 종교 미술의 영향력이 커지기도 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미술가로는 카라바조가 있는데 빛과 어둠의 극적인 대비를 활용하여 당시 민중들의 삶을 역동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두터운 붓질로 형태와 질감을 표현한 벨라스케스, 과장된 육체와 화려한 색채, 극적인 광선을 주로 사용했던 루벤스, 중요한 부분은 빛으로 강조했던 렘브란트 등이 있다.

바로크 미술(17세기 초반~18세기 전반)이 강력해진 왕권과 교회의 후원을 배경으로 한다면, 이후 등장한 로코코 미술(18세기 초반~18세기 후반)은 귀족 사회의 생활을 기반으로 한다. 이 때, 이전의 중상주의 정책으로 인해 부르주아 계층이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살롱이라는 미술 공간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바로크 시대의 미술이 위압감이 느껴지는 남성적 미술이라면 로코코 미술은 우아하고 섬세한 여성적 미술이었다. 로코코 미술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와토의 키테라섬의 순례, 프라고나르의 그네 등이 있다.

로코코 미술(18세기 초~18세기 후반)은 섬세하고 우아했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관능적이고 향락적이기도 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일반 민중이 힘을 얻게 되자 로코코 미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다시 르네상스 미술로 돌아가고자 하는 신고전주의(18세기 후반~19세기 초반)가 차지했다. 신고전주의 미술은 정확한 묘사와 우아한 형태, 완벽한 입체감 등에 집중했기에 다소 형식적이고 인공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당시 미술의 대표적 작품으로는 다비드의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 앵그르의 목욕하는 여인 등이 있다.

프랑스 대혁명(A.D.1789~1794)과 산업혁명(18세기 중반)이 일어난 이후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은 보다 인공적으로 변해갔다. 사람들은 형식적이고 인공적인 미술 대신 보다 자연스럽고 감정적인 미술을 선호하게 되었는데, 이 시기 일어난 새로운 경향의 미술

을 가리켜 낭만주의(18세기 말~19세기 초)라고 한다. 격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여 그리스 독립전쟁 때 터키인들의 잔혹성을 고발한 들라크루아의 키오스섬의 학살이 그 예시이다. 또한, 이 시기에 영국에서는 초상화 중심의 전통에서 벗어나 풍경화라는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었고, 프랑스에서는 도시를 떠나 바르비종이라는 작은 시골마을에 살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전원풍경을 그리던 밀레, 루소 등의 바르비종파도 생겨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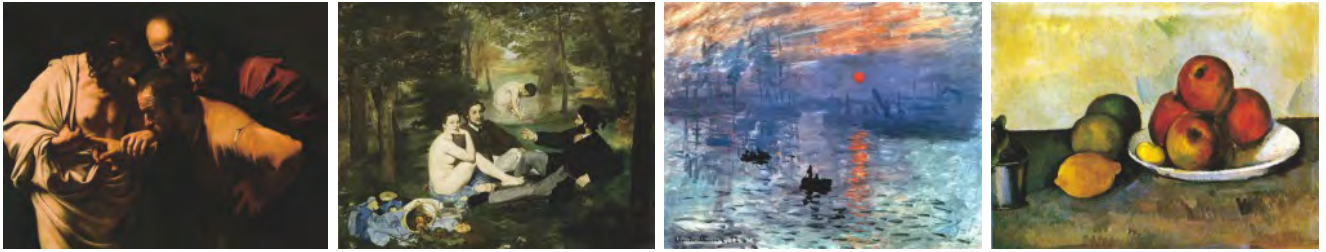
19세기 산업혁명이 완성되고 자연과학이 발달하며 실증적 과학 정신이 보급됨에 따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관찰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사실주의 미술이 등장했다. 이 때, 사실주의란 단순히 대상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며, 당시 생활상을 이상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 특성 덕분에 사실주의 미술은 노동자의 고단함 등 당시의 부조리한 사회를 고발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귀스타브 쿠르베의 돌 깨는 사람, 오노레 도미에의 삼등열차 등이 있다.

19세기 중반, 당시 미술은 물론 앞으로의 미술 경향에도 크나큰 영향을 주는 발명이었던 그것은 바로 사물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사진기(A.D.1839)와 비로소 휴대가 가능해진 튜브 물감(A.D.1841)이었다. 사진기로 인해 어떻게 사물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지에 관심이 쏠려 있었던 화단의 흐름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튜브 물감의 발명은 화가들이 실내만이 아닌 야외에서도 수월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일본의 우키요에가 소개되어 당시 화가들의 명암 등을 사용해 사물을 사실적으로 그려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선과 색만으로도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였다.

이런 배경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인상주의 미술(19세기 중반~20세기 초)이다. 초기 인상주의 미술은 햇빛이 비추는 야외에서 변화하는 빛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순간적인 인상을 포착하려고 애썼다. 대표적 작품으로는 정면에서 비추는 빛을 선택하여 명암이 단순







하게 표현된 에드워드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과 순간적인 인상을 빠르게 그려 형태가 다소 흐트러진 모네의 해돋이 인상 등이 있다. 또한, 빛과 달리 색은 섞을수록 탁해진다는 단점을 극복하고 찰나의 순간을 표현하였다.

인상주의 미술은 초기 인상주의(19세기 중반~19세기 후반)에서 후기 인상주의(19세기 후반~ 20세기 초)로도 이어지는데, 후기 인상주의 미술가들 중 대표적인 작가들은 폴 세잔, 빈센트 반 고흐, 폴 고갱 등이 있다. 세잔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물의 본질적 구조를 드러내고자 하였고 그의 생각은 이후 입체파와 추상미술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흐는 자신의 들끓는 감정이나 감동을 표현하기 위해 형태나 색채를 과장하였으며 이로써 표현주의 미술의 시초가 되었다. 고갱은 남태평양의 원주민과 그 문화에 감명을 받아 밝고 강렬한 색채를 통해 순수하고 예리한 감정을 담아내었으며, 이를 야수파인 앙리 마티스가 계승하였다.

표현주의 미술(20세기 초반)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담아 형태나 색채를 왜곡한 것에서 그 특징이 있다. 표현주의 미술은 색채를 고흐와 고갱의 영향을 받아 색채를 강렬하게 추구한 야수파, 그림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잇고자 하여 사회 현상을 비판적으로 그려낸 독일의 다리파, 사물을 단순하고 추상적으로 묘사하여 독특한 형상세계를 구축한 독일의 청기사파가 있다. 특히, 청기사파의 칸 단스키는 예술 종합학교인 바우하우스에서 그의 추상미술을 이론화한 기초 조형이론을 세우고 서정적 미술의 시초가 되었다.

20세기 초반 입체주의 미술이 등장했다. 이 미술은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났으며, 사물의 구조를 분해하여 평면에 여러 시점으로 사물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로써 전통적인 원근법, 명암법, 색채 등 대상을 재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여러 기법들이 사용되지 않게 되었으며, 이것은 당시 관점으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입체주의는 사물을 기하학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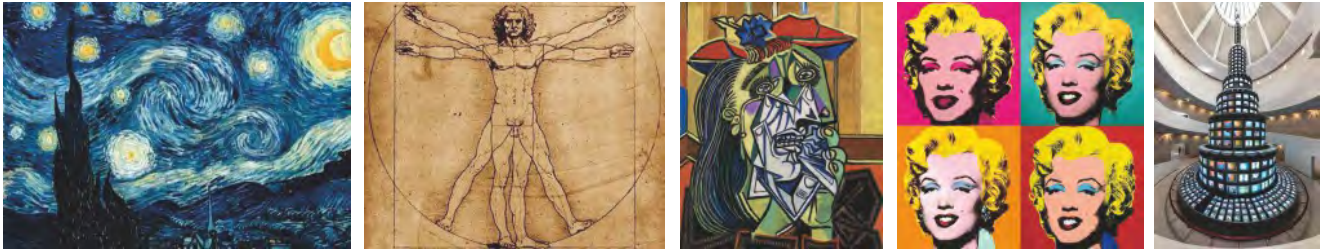
인 요소들로 나누어 표현했기에 이후 기하학적 추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피카소의 아비뇰의 처녀들(A.D.1907)이 있다.

입체주의(A.D.1907~1914)는 이후 후대의 미술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게 되었다. 그 중에는 기계문명의 핵심으로 판단한 속도를 시각화시키려는 미래주의, 입체파에서 발전하여 구조 뿐 아니라 색채 또한 중요시한 오르피즘, 입체파의 영향을 받아 선과 색으로만 사물을 나타내는 신조형주의(20세기 전반)가 등장했다. 신조형주의의 대표적인 화가로는 몬드리안이 있는데, 그는 미술이 탈자연화 되어 점, 선, 면 등 조형적 요소만 남긴 순수한 초상으로 초월적 질서를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미술 경향을 가리켜 기하학적 추상이라고 하기도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현대 미술에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 추상표현주의(A.D.1940~1950)가 등장했다. 이 추상표현주의는 붓을 휘두르는 방법, 물감을 뿌리는 방법, 캔버스에 물감이 스며들게 하는 방법 등 실로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며, 형태가 없는 대신 그 안에 사람의 격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대표적 화가로는 액션페인팅의 선구자 잭슨 폴록, 격렬하게 붓을 사용한 월렘 드 쿠닝, 색을 강조한 마크 로스코 등이 있다.

20세기 중후반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이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대중과의 소통과 개인의 개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작품과 전시의 형태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종류에는 대중문화적 이미지를 미술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한 팝아트, 사물의 본질만을 표현하고자 하는 미니멀아트,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미술, 사람의 몸 또는 몸의 변화와 표현 행위 그 자체를 매체로 사용하는 행위미술, 돌멩이·진흙 등 대지를 캔버스로 사용하는 대지미술, 비디오 등 대중매체를 창작에 도입한 미디어아트 등이 있다.





또한, 작금의 시대를 맞이하여 첨단기술과 예술을 결합한 융합장르인 뉴미디어 아트, 키네틱 아트, 바이오 아트 등 새로운 미술 장르가 탄생했다.

뉴미디어 아트란 컴퓨터와 인터넷 등 새로운 미디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을 일컫는다. 뉴미디어 아트는 기존의 미디어아트와 같이 미디어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전자는 아날로그, 후자는 디지털이다. 웹아트, 3D 프린팅 미술, 인터랙티브 아트, 빅데이터 미술, AI(인공지능) 미술, VR(가상현실)·AR(증강현실)·MR(혼합현실) 미술이 있으며, 일반 대중에게 다소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각 미술 장르 또는 그 미술에 사용된 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먼저 웹아트는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월드와이드웹(WWW)을 통해 예술가와 관객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예술을 총칭한다. 3D 프린팅은 3D 프린터가 연속적인 계층의 물질을 뿌리면서 3차원 물체를 만드는 제조 기술이다. 인터랙티브 아트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작품과 작가, 관람객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심이 되는 작품을 말한다.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수십 테라바이트)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를 포함한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AI는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컴퓨터 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이다. VR(가상현실)은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마치 실제 주변 상황·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기술이며, AR(증강현실)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며, MR(혼합현실)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합쳐서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

키네틱 아트는 움직임을 중시하거나 그것을 주요소로 하는 예술작품을 뜻하며, 그리스어로 움직임을 의미하는 Kinesis에 어원을 두고 있다. 작품 그 자체가 움직이거나 또는 움직이는 부분이 조립된 것으로, 작품은 대부분 조각의 형태를 띠고 있다. 1960년대까지 기계 장치의 운동에 역정을 두었던 키네틱 아트는 60년대 이후 빛, 움직임, 소리를 주로 이용하였고, 이후에는 물, 바람, 안개, 연기 등 생물적 요소를 접목시켜 왔다. 키네틱 아트의 최초 작품으로는 마르셀 뒤샹의 자전거 바퀴(1913년)가 있으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최우람의 Opertus Lunula Umbra(2008), 테오 얀센의 Strandbeest Plaudens Vela Marco Zwinkels silent beach(2013)가 있다.

바이오 아트는 살아있는 생명을 매체로 사용하는 예술로, 매체를 다루는 도구로서 유전공학, 조직배양, 복제, 유전자 이식 등을 포함한 생명공학 기술이 사용된다. 이 바이오 아트라는 용어는 에두아르도 카츠가 1997년 작업인 타임캡슐에서 처음 언급하여 사용되기 시작했다. 생명체를 직접 다루고 변형시키는 특성상 바이오 아트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새로운 미학적 문제들까지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에두아르도 카츠의 타임캡슐, 로라 신티의 선인장 프로젝트, 스텔락의 팔의 귀 등이 있다.

이로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매체가 만들어지면 그것들을 활용한 새로운 미술 장르도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래의 미술은 어떤 모습을 띄고 있을지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가지게 한다.



## 실태연구로 알아보는 미술장르와 표현기법

### | 미술장르



평면조형	입체조형	설치미술 · 영상 · 미디어
동양화 서양화 서예 판화 디자인 만화 사진	조소, 공예	설치미술, 영상, 미디어아트

- | 동양화** 동양화란 이름 그대로 동양의 그림을 뜻하는데, 한국화, 일본화, 중국화가 해당된다. 명칭 자체는 1920년대 서양화와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동양의 그림 뿐 아니라 현대인들이 전통적인 재료인 화선지, 먹, 담채 혹은 수묵화처럼 전통적인 기법을 사용해 그리는 경우도 포함한다. 현재는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만이 아닌 스티로폼 등 현대적인 재료 혹은 기법을 가미하는 경우에도 동양화라고 한다.
- | 서양화** 서양화는 서양에 뿌리를 둔 재료 및 기법을 사용하여 그렸다면 누가 그렸는지 상관없이 서양화라고 칭한다. 재료에 따라 유화·수채화·크레용화·파스텔화·연필화·펜화·목탄화 등이 있으며, 표현 대상에 따라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추상화 등이 있다. 표현 기법에 따라 크게 구상화와 추상화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때, 추상화란 현실의 사물을 재현하지 않고 색, 선, 형만으로 표현하는 그림을 뜻하며, 구상화란 추상화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현실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그림이다.
- | 조소** 조소는 3차원의 공간 속에 입체 형상을 표현하는 장르로 크게 조각과 소조로 나눌 수 있다. 조각은 한자로 彫刻(새길 조, 새길 각)이라 하며, 그 이름대로 나무·돌·금속 등 단단한 재료를 조각칼 등으로 깎아내어 입체를 새긴 것을 뜻한다. 소조는 한자로 塑造(토우 소, 지을 조)라 하며 찰흙, 점토 등 부드러운 재료를 안에서 밖으로 덧붙여 나가며 입체적 형상을 만들어낸 작품을 의미한다. 또한, 이 조소는 환조와 부조로 나뉘지는데, 동서남북 네 방향 모두 입체인 것을 환조라 하고 부조는 어느 한 방향만이 입체인 경우를 의미한다.
- | 공예** 공예는 한문으로 工藝(장인 공, 재주 예)라고 하며 실용성과 함께 장식적인 가치를 지닌 것을 의미한다. 실용성과 관계없이 예술성만을 추구하는 순수미술과 구별하기 위해 19세기 중반부터 일반화 된 용어로 기계로 만든 경우에도 위의 조건을 갖춘다면 공예에 해당되어 기계 공예라 한다. 또한, 공예는 목적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전시회 등에 참여하기 위해 예술성을 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미술 공예, 예술성보다 실용적인 면이 강조된 생활 공예이다. 또한, 재질에 따라 목재공예, 금속공예, 섬유공예, 도예공예, 종이공예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 | 서예** 서예는 문자를 사용하여 사상과 감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장르이다. 3천여년의 역사를 가진 동양만의 조형예술로 그림이 아닌 문자임에도 예술이 된 것이 특이하다. 서예의 재료는 종이, 붓, 먹, 베풀기가 있으며, 문자의 특성상 글씨를 쓰는 붓이 가장 중요하다. 서예의 종류는 서체(글씨체)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체는 또한 한글 서체와 한문 서체로 분류된다. 한글 서체에는 훈민정음 창제 직후 만들어진 판본체와 조선 후기 주로 궁녀들에 의해 발전된 궁체가 있으며, 한문 서체에는 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 등 5체가 있다.



### | 판화

나무·금속·돌 등의 면에 형상을 그려 판을 만든 다음, 잉크나 물감 등을 칠하여 종이나 천 등에 인쇄하는 장르를 판화라 칭한다. 하나의 판으로 똑같은 작품을 여러 개 복제할 수 있기에 대량 양산이 용이한 것이 사진을 제외한 일반적인 미술 장르와의 차이점이다. 만드는 방식에 따라 판의 볼록한 곳에 잉크를 칠하는 볼록 판화, 오목한 부분에 잉크를 묻히는 오목 판화, 평평한 판에 크레용이나 붓으로 물감을 칠하고 찍어내는 평판화, 판 위에 구멍을 뚫어 뚫린 부분의 잉크가 종이에 새어나가 찍히게 하는 공판화가 있다

### | 디자인

디자인이란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작품이나 제품을 설계하거나 도안하는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이 되려면 실용성, 생산성과 심미성, 창의성을 갖추어야 한다. 디자인의 종류는 크게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환경디자인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시각디자인은 시각을 중심으로 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디자인을 뜻하며, 제품디자인은 기계에 의해 양산되는 제품들을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디자인은 사람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 | 설치미술

일반적인 회화·조각과 달리 성역화 된 공간에 진열하는 것이 아닌 전시실 같은 주위 환경을 고려하고 작품을 설치하여 전시 공간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는 장르를 말한다. 그 특성상 같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어떤 장소에 설치하는지에 따라 다른 느낌을 주게 되며, 주로 일정 기간만 전시되고 그 이후에는 철거하는 편으로 일회성인 경우가 많다. 또한, 설치미술은 소재와 주제가 파격적이며, 시각·청각·후각·촉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작품을 감상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 | 미디어아트

컴퓨터, 텔레비전, 영화,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미술에 도입한 것으로 매체예술이라고도 한다. 미디어아트의 시초는 1960년대 백남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70년대 이후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본격적으로 변화하였다. 컴퓨터아트, 멀티미디어 또는 디지털 아트 모두 미디어아트의 한 부분이자 기술의 발전과 함께 만들어졌다는 것을 통해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미디어아트의 종류에는 전자매체의 양방향성을 강조한 인터랙티브 아트, 로봇 등 기계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키네틱 아트 등이 있다.

### | 만화

익살스럽고 간명한 기법으로 나타난 회화의 한 형식을 말한다. 만화의 종류에는 어떤 사람의 특징을 과장하고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그림인 캐리커처,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한 컷짜리 그림인 카툰, 네 컷이나 그 이상의 컷으로 구성되어 줄거리가 있는 코믹스 등이 있다. 카툰과 코믹스의 경우 감성적 기호인 그림과 개념적 기호인 글이 합쳐진 복합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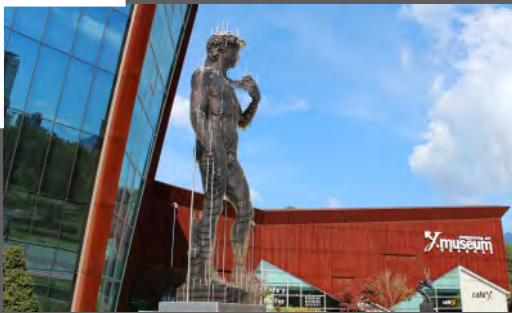
### | 사진

물체의 형상을 감광막 위에 나타나도록 찍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만든 영상이다. 사진은 단순히 사물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똑같은 사물이라도 촬영하는 사람이나 사진기의 각도 등 찍는 방법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찍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진 또한 어떻게 촬영하느냐에 따라 독특한 조형성을 지니게 되며, 현재는 포토샵 같은 디지털 기술과 결합해 더욱 다양하면서도 예술적 가치가 있는 사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인식과 다르게 사진도 엄연히 미술 장르에 포함된다.





# 뮤지엄허브 양평



양평군립미술관  
12546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문화복지길 2  
☎ 031-775-8515(3)



화서이항로기념관  
12500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화서1로 239  
☎ 031-774-5326



양평곤충박물관  
12507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496  
☎ 031-775-8022



친환경농업박물관  
12510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670  
☎ 070-7715-3796



몽양여운형기념관  
12583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몽양길 66  
☎ 031-775-5600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12504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소나기마을길 24  
☎ 031-773-2299

# Y M U S E U M

## 2020

### 양평군립미술관 지역작가 실태연구 자료집

발행처 양평군립미술관  
발행인 배동환 관장  
편집인 이형옥 학예연구실장

연구총괄 이형옥 학예연구실장  
연구진행 신해리 실태연구  
연구지원 조선영 기획운영 선임  
이승근 홍보문화기획 선임  
정범교 시설안전관리 선임  
맹홍균 교육전시기획  
김수빈 전시기획  
신희연 서비스공모사업  
이지연 학예연구  
오여진 학예연구  
맹예슬 학예연구  
김순이 환경미화

디자인·인쇄 이야기담(談)  
자료출처 양평군청, Doopia

본 자료는 양평군립미술관이 발행하였습니다.  
본 권에 실린 모든 내용은 양평군립미술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양평군립미술관  
12546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문화복지길 2  
T. 031-775-8515(3) F. 031-775-8521 www.ymuseum.org